

朱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梁光烈·丁彰炫*

A Study on Zhu dan Xi's 「Theory on the Sufficiency of Yang and the Deficiency of Yin」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Yang, Kwang-Yeol·Jeong, Chang-Hyun

「Theory on the Sufficiency of Yang and the Deficiency of Yin(陽有餘陰不足論)」 mainly instituted as follows: The 'Yang Qi(陽氣)' of the heaven(天) has changed to 'Qi(氣)', and the 'Yin Qi(陰氣)' of the earth(地) has changed to 'Xue(血)', 'Qi(氣)' is always sufficient and 'Xue(血)' is always deficient.

'The Always Sufficient Qi(氣常有餘)' means 'the fire always exists(常有火)', and 'the fire(火)' is 'the premier fire(相火)'. 'The premier fire(相火)' is always in men's body and causes 'activities(動)' which is the core characteristic in men's life, and in other side it always has opportunities to be made symptoms by 'the abnormal activities of the premier fire(相火妄動)'.

In 'the always deficient Xue(血常不足)', 'Xue(血)' is the 'Yin Qi(陰氣)' of liver and kidneys[肝腎] which is attached by 'the premier fire(相火)', as it means 'Xue(血)' and 'Jing(精)'. He suggested that 'the premier fire(相火)' is the power of human life, but if 'the premier fire(相火)' is not based on 'Yin Qi(陰氣)', it can not fulfill its function. So he thought that the maintenance and fulfillment of 'Yin Qi(陰氣)' is very important.

In conclusion, 「Theory on the Sufficiency of Yang and the Deficiency of Yin(陽有餘陰不足論)」 explains the basic character of men's life which 'Dong Duo Jing Shao(動多靜少)', so 'the premier fire(相火)' which control 'the activities(動)' is always being and 'Jing Xue(精血)' which control 'Jing(靜)' is always scare.

Key Words : Zhu Dan Xi(朱丹溪), the premier fire(相火), the king fire(君火), Xue(血), Jing(精)

I. 序 論

丹溪 朱震亨(1282년-1358년)은 元나라 婺州 義烏

(현재 浙江省 義烏縣)사람이다. 字는 彥修이며, 金元 四大家의 한 명으로 劉河間(1120년경-1200년), 張子和(1156년-1228년), 그리고 李東垣(1180년-1251년)등 다른 세 사람보다 후대 사람이다. 그는 본래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다. 처음

* 교신저자 : 丁彰炫,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02-961-0337, jeongch@khu.ac.kr

에는 儒學을 공부하였는데, 36세가 되어 朱熹의 四傳弟子인 白雲 許謙을 謁見하고 본격적으로 理學을 배웠다. 나이가 사십이 넘어서야 許謙의 권유로 비로소 醫學에 전념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太平惠民和劑局方』을 공부하였는데, “옛 처방을 가지고 지금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형세가 다습할 수 없다”¹⁾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운 스승을 찾아다니다가 太無 羅知悌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 때 나이가 44세였다. 太無 羅知悌는 河間의 再傳弟子로서 河間의 학설에 精通하였을 뿐 아니라 張子和와 李東垣의 학설을 두루 통하여서 명성이 매우 높았는데, 丹溪의 성실함을 기뻐하여 “河間·子和·東垣의 책들을 주고 세 醫家의 뜻을 들어 밝혀”²⁾주었다. 그리하여, 丹溪는 理學의 바탕 위에서 河間·子和·東垣의 著作을 깊이 연구하고 取長補短하여 종합적이고 독창적인 이론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그의 이론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는 직접 지은 『格致餘論』, 『局方發揮』, 『本草衍義補遺』와, 후세 사람들이 정리한 『金匱鉤玄』, 『丹溪心法』, 『丹溪手鏡』, 『脈因證治』, 『丹溪心法心要』 등이 있다.

1. 연구 동기

『格致餘論』은 丹溪의 대표작으로 丹溪의 의학 이론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飲食色慾箴」과 41개의 醫論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醫論중에서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陽有餘陰不足論」이다. 이 「陽有餘陰不足論」은 丹溪 醫學思想의 精髓이며, 그의 醫學思想을 이해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요한 醫論이다. 그의 이론은 元末 明初의 醫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醫家들이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서 각각 서로 다른 이론들을 발표하고 서로 논쟁을 하였으며, 신랄하게 비판한 醫家들도 있었다.

丹溪의 醫學思想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清代의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그 학설은 陽

은 쉽게 動하고 陰은 쉽게 이지러진다고 하여, 유독 滋陰降火를 중시하였으며 「陽有餘陰不足論」을 지었다.”³⁾라고 하고, 또한 “補陰으로 근본을 삼아 실로 眞水를 곧바로 補하는 先河를 열었다.”⁴⁾라고 하여 丹溪가 直補眞水하는 滋陰降火法을 중시하였다고 보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丹溪가 주장한 滋陰降火는 실제로 후세 醫家들이 陰虛發熱을 치료하는 길을 열은 것이다.”⁵⁾와 “그 학술 이론은 멀리 『內經』에 이어져있고, 가깝게는 河間의 火熱理論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는 陰虛火旺의 証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에 치중하였으며 論治는 補陰을 위주로 한 것이 많았다.”⁶⁾등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丹溪가 陰虛火旺의 病機를 밝혔고 滋陰降火法을 많이 응용했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丹溪는 陰虛火旺에 대한 滋陰降火法을 중시한 滋陰派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편적인 인식임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丹溪의 醫論과 醫案에서의 그의 실제 처방을 살펴보면, 苦寒한 약물로 滋陰降火하기 보다는 養血補氣하는 약물을 喜用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丹溪의 滋陰理論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陽有餘陰不足論」에서 ‘氣常有餘血常不足’의 의미를 자세하게 고찰하는 것은 丹溪의 滋陰理論을 이해하는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丹溪가 다른 金元四大家의 이론을 물려받아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세웠으므로 다른 金元四大家의 이론을 재조명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永榕,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格致餘論. 海口, 海南出版社. 1999. p.531. : “其說謂陽易動, 陰易虧, 獨重滋陰降火, 創爲陽常有餘陰常不足之論.”

4) 永榕,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金匱鉤玄. 海口, 海南出版社. 1999. p.531. : “以補陰爲宗, 實開直補眞水之先.”

5) 李聰甫, 劉炳凡 編著. 金元四大家 學術思想之研究.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223. : “丹溪主張的滋陰降火, 實開後世醫家治療陰虛發熱的先河.”

6) 袁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p.211 : “其學術理論遠紹『內經』, 近亦受到河間火熱理論的影響, 然它側重在闡述陰虛火旺之証, 論治多以補陰爲主”

1) 戴良. 丹溪翁傳.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9 : “操古方以治今病, 其勢不能以盡合”
2) 戴良. 丹溪翁傳. 丹溪醫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9 : “授以劉張李諸書, 爲之敷揚三家之旨”

2. 연구 범위 및 방법

丹溪는 弟子와 私淑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으며, 丹溪의 著作이라고 전해 내려오는 책들의 상당수가 丹溪의 후세 사람들이 정리한 것들이다. 물론 이 책들은 丹溪의 이론을 담고는 있으나 그 의미가 왜곡된 부분도 많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주로 丹溪가 직접 저술한 저작인 『格致餘論』, 『局方發揮』, 『本草衍義補遺』와 『金匱鉤玄』에서 ‘戴云’ 부분을 제외한 부분들을 연구 범위로 삼았다.

또한, 「相火論」은 「陽有餘陰不足論」을 부연 설명한 醫論으로 보아 「陽有餘陰不足論」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相火論」이 「陽有餘陰不足論」을 부연 설명한 醫論이라고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내용상의 연관성이다. 「陽有餘陰不足論」에서 「陽有餘」에 관한 내용은 “主閉藏者, 腎也, 司疎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而其系上屬於心.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疎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矣”가 전부이지만, 「相火論」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相火의 臟腑病機가 보충된 것이므로, 「相火論」이 「陽有餘陰不足論」과 별개의 醫論이라고 볼 수 없다. 丹溪는 醫家이기 이전에 實踐躬行을 강조한 儒學家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陽有餘陰不足論」에서는 節飲食·戒色慾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고, 본래 難成易虧한 陰氣가 더욱 손상되는 것을 피해야 함을 위주로 말하고, 다시 ‘氣常有餘血常不足’의 병리적인 측면은 「相火論」에서 부연 설명한 丹溪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둘째는 『格致餘論』에서 「陽有餘陰不足論」과 「相火論」이 실린 순서이다. 『格致餘論』은 丹溪가 晩년에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한 책으로 책의 구성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飲食箴」과 「色欲箴」이 네 글자씩 한 구를 이루어 모두 144자로 구성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格致餘論』에는 모두 41개의 醫論이 있는데, 이 중에서 「陽有餘陰不足論」이 가장 먼저 나오며, 그 다음에 그 중요성에 따라 「治病必求其本論」, 「瀉脈論」, 「養老論」, 「滋幼論」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상과 연관된 醫論들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책의 구성에서 「相火論」은 35번째 醫論이며, 그 뒤를 「人迎氣口論」을 부연 설명한 「左大順男右大順女論」, 「飲食箴」을 부연 설명한 「茹淡論」, 「色欲箴」을 부연 설명한 「房中補益論」이 잇고 있다. 이러한 순서로 볼 때 「相火論」은 「陽有餘陰不足論」을 뒤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醫論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고찰함에 있어서 河間, 東垣 등의 이론을 많이 참고하였다. 丹溪 스스로 “太無 羅知悌를 스승으로 삼아 河間·戴人·東垣·海藏의 책들을 볼 수 있었으며, 비로소 濕熱相火가 병이 됨이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⁷⁾라고 하여 자신이 羅知悌로부터 河間, 子和, 그리고 東垣의 학문을 익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고찰함에 있어서 丹溪의 임상기록인 醫案을 중시하였다.

II. 本 論

1. 「陽有餘陰不足論」의 배경

丹溪는 朱熹의 四傳弟子인 許謙에게서 理學을 배웠고⁸⁾, 河間의 再傳弟子인 羅知悌에게서 河間, 戴人, 東垣, 海藏의 이론을 배웠는데⁹⁾, 이러한 학문적인 배경이 서로 融會되어 독특한 학문을 이루게 되었다. 이 부분에서는 理學·河間·東垣이 「陽有餘陰不足論」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理學이 「陽有餘陰不足論」에 미

- 7) 朱丹溪. 格致餘論序.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 : “得羅太無諱知悌者爲之師, 因見河間戴人東垣海藏諸書, 始悟濕熱相火爲病甚多.”
- 8) 戴良. 丹溪翁傳.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9 : “後聞許文懿公, 得朱子四傳之學, 講道八華山, 復往拜焉. 益聞道德性命之說, 宏深粹密, 遂爲專門.”
- 9) 朱丹溪. 格致餘論序.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5 : “得羅太無諱知悌者爲之師, 因見河間, 戴人, 東垣, 海藏諸書, 始悟濕熱相火爲病甚多.”

친 영향

丹溪는 본래 儒學世家에서 출생하여 어려서부터 舉子業을 공부하였는데, ‘俠氣를 숭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을 싫어하였고’¹⁰⁾, 是非를 가리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朱熹의 四傳弟子인 白雲 許謙이 東陽 八華山에서 道에 대해 강론한다는 것을 듣고, “장부가 학문을 함에 있어서 道를 듣는데 힘쓰지 않고 다만 俠氣만을 숭상한다면 이 또한 迷惑됨이 아니겠는가”¹¹⁾라고 하고 許謙을 좇아 道德性命의 학문을 연마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 그의 나이가 36세였다. 이 때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潛驗默察하여 깨달은 바는 반드시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수 년 후에는 학업이 크게 진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許謙이 “내가 병들어 누운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의학에 精通한 사람이 아니면 능히 일으키지 못하리라. 너는 보통 사람과 달리 총명하니 기꺼이 의학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¹²⁾라고 하여 의학을 권하자 丹溪는 “선비는 진실로 한 가지 기예에 정통하고, 이를 미루어 사물의 핵심에 이르나니, 비록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벼슬을 한 것과 같다.”¹³⁾라고 하고 비로소 醫學에 정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丹溪의 理學家로서의 면모는 『元史·列傳·儒學』의 許謙에 대한 條文 밑에 있는 “같은 郡의 朱震亨은 字가 彥修이고 許謙의 뛰어난 弟子이다. 그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를 닦아 옛날의 행실을 도타이 했던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교화되었다.”¹⁴⁾라는 말에도 잘 나타나 있다. 丹溪의 이러한 儒學家

로서의 바탕은 醫學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丹溪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는 濂溪 周敦頤와 晦庵 朱熹가 있다.

周敦頤(1017-1073)의 字는 茂叔이며, 보통 濂溪先生이라고 부른다. 丹溪는 「相火論」의 처음에 “太極이 움직여 陽을 生하고 고요하여 陰을 生하는데, 陽이 움직여서 변하고 陰이 고요하여 습하여 水火木金土를 生한다”¹⁵⁾라고 하여 陰陽五行의 생성을 말하였는데, 이는 周敦頤의 『太極圖說』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주의 원초적 실체는 太極이고 太極이 分化하여 陰陽의 두 가지 氣가 되며, 陰陽의 두 가지 氣는 變化와 交습을 통하여 五行을 형성하고, 각각 특수한 성질을 지닌 五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化合하고 凝聚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周敦頤의 우주관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周敦頤는 또한 主靜과 無欲을 통해 수양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太極圖說』에서 “오직 사람만이 그(氣의) 빼어남을 얻어 가장 神靈하므로, 形이 生하고 神이 淸을 發하게 된다. 五性이 感하여 움직여서 善惡이 나누어지며 萬事가 나오게 된다. 聖人은 中正과 仁義로써 (五性을) 定하고 고요함을 주로 하여 사람의 기준을 세웠다.”¹⁶⁾라고 하였다. 실제로 周敦頤는 主靜을 통한 수양을 통해 높은 정신 경지에 이르렀으며, 오랫동안 미친한 관리를 지냈지만 그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고 처세하는 데 초연하였다. 周敦頤의 수양론의 주요한 특색인 主靜은 丹溪의 의학 사상에도 영향을 미쳐서 丹溪는 主靜을 통해 相火의 妄動을 막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朱熹(1130-1200)의 字는 元晦와 仲晦이고 호는 晦庵이다. 朱熹는 周敦頤의 主靜論을 더욱 발전시켜서 사람의 마음을 人心과 道心을 구별하고, 道心으로 人心을 제어할 것을 주장하였다. 丹溪는 朱熹의 四傳弟子인 白雲 許謙에게서 理學을 배웠으므로 朱熹의 영

10) 宋濂. 故丹溪先生朱公石表辭.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2 : “尚俠氣, 不肯出天下”
 11) 宋濂. 故丹溪先生朱公石表辭.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2 : “先生歎曰, 丈夫所學, 不務聞道, 而唯俠是尚, 不亦惑乎?”
 12) 戴良. 丹溪翁傳.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9 : “文懿謂曰, 吾臥病久, 非精於醫者, 不能以起之. 子聰明異常人, 其肯游藝於醫乎?”
 13) 戴良. 丹溪翁傳.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79 : “士苟精一藝, 以推及物之仁, 雖不仕於時, 猶仕也.”
 14) 宋濂. 元史. 북경. 中華書局. 1986. p.4320 : “同郡朱震亨, 字彥修, 謙之高第弟子也. 其清修苦節, 絕類古篤行之人, 所至人多化之.”

15)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 38 :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16) 周敦頤. 太極圖說. 상해. 上海古籍出版社. 1992. p.10 : “惟人也, 得其秀而最靈, 形即生矣, 神發知矣, 五性感動而善惡分, 萬事出矣,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立人極焉.”

향을 많이 받았으며, 그리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는 방법으로 道心을 강조하였다.

朱熹는 사람의 마음을 人心과 道心으로 나누어 “知覺이 耳目의 욕망으로부터 나가면 곧 이것이 人心이고, 知覺이 義理로부터 나가면 곧 이것이 道心이다.”¹⁷⁾라고 하였다. 또한, “사람이 이 형체를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비록 上智라 할지라도 人心이 없을 수 없고, 또한 이 性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下愚라 할지라도 道心이 없을 수 없다. 두 가지가 사방 한 촌의 사이에 섞여 있으니, 다스릴 바를 알지 못하면 위대한 것이 더욱 위태해지고 隱微한 것이 더욱 隱微해지니, 天理의 공평함이 마침내 人欲의 사사로움을 이기지 못하게 된다. 자세한 즉 두 가지 것의 사이를 살펴서 섞이지 않게 하고, 專一한 즉 그 본심의 바를 지켜 떠나지 않는다. 이에 일을 좇아 행함에 조금이라도 間斷함이 없이 道心으로 하여금 항상 一身의 주가 되게 하고 人心으로 하여금 매번 命을 들도록 하여야 하니, 그렇게 하면 위대한 것은 편안해지고, 隱微한 것은 드러나서, 動靜과 云爲가 스스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차이가 없게 된다.”¹⁸⁾라고 하여 道心이 人心을 제어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丹溪는 “周子又曰, 聖人定之以中正仁義而主靜. 朱子曰, 必使道心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焉. 此善處乎火者”¹⁹⁾라 하여 周敦頤와 朱熹를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相火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主靜과 道心을 강조하였다. 즉, 丹溪는 理學의 관점을 받아들여 이를 의학에 응용함에 있어서 收心節慾하여 君火로 하여금 고요하게 하고, 相火로 하여금 제자리를 지키게 하는 것을 중시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人心이 매번 道心으로부터 명을 받고, 또한 고요함으로써 人心을 주하면, 五火의 움직임이 모두 中節하게 되어 相火는 오로지 造化를 도와 쉽 없는 운용이 되는”²⁰⁾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고, 相火가 妄動하지 않아서 陰精이 耗損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防病延年함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道心으로 人心을 제어하여 主靜함은 丹溪가 가장 강조한 것으로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시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格致餘論』에서는 醫論들보다 飲食色欲箴이 먼저 나오며, 또한 養血涼熱하는 약을 쓰더라도 안팎이 고요하지 않으면 腎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상에서 周敦頤의 主靜과 無欲, 그리고 朱熹의 道心이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2) 河間이 『陽有餘陰不足論』에 미친 영향

丹溪는 河間の 再傳弟子인 羅知悌에게서 醫學을 배웠으므로, 학문적으로 河間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河間の 火熱病機를 중심으로 丹溪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河間과 丹溪가 모두 火熱病機를 중시한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河間の “하늘은 常火로써 하고 사람은 常動으로써 하니, 움직임은 陽에 속하고 고요함은 陰에 속한다. 안팎이 모두 어지러우니 辛溫大熱한 방제는 지나치게 써서는 안 된다”²¹⁾ 라는 말에서 ‘天以常火, 人以常動’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丹溪의 “하늘이 주관하여 만물을 생하므로 (만물은) 항상 動하고, 사람이 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또한 항상 動한다. 그 항상 動하는 것은 모두 相火의 행함이다.”²²⁾라는 관점으로

17) 黎靖德. 朱子語類卷78. 북경. 中華書局. p.2009 : “知覺從耳目之欲上去, 便是人心. 知覺從義理上去, 便是道心”

18) 朱熹. 中庸中庸章句序. 서울. 明文堂. 1992. pp.1-3 : “然人莫不有是形, 故雖上智, 不能無人心, 亦莫不有是性, 故雖下愚, 不能無道心, 二者雜於方寸之間, 而不知所以治之, 則危者愈危, 微者愈微, 而天理之公, 卒無以勝夫人欲之私矣. 精則察夫二者之間而不雜也, 一則守其本心之正而不離也. 從事於斯, 無小間斷, 實使道心, 常爲一身之主, 而人心每聽命焉, 則危者安, 微者著而動靜云爲, 自無過不及之差矣.”

19)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9.

20)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9 : “人心每聽命於道心, 而又能主之以靜, 彼五火之動, 皆中節, 相火惟有裨補造化, 以爲生生不息之運用耳, 何賊之有?”

21)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03 : “天以常火, 人以常動, 動則屬陽, 靜則屬陰, 內外皆擾, 故不可峻用辛溫大熱之劑.”

이어졌다. 河間과 丹溪 두 사람은 모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하늘의 소관이며, 하늘은 陽에 속하고 陽은 그 성질이 動하는 것이므로 사람의 삶 또한 恒動한다고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丹溪는 이러한 恒動의 원동력을 相火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丹溪는 또한 河間の 右命門相火의 개념에 큰 영향을 받았다. 相火에 대해서 河間은 “사람의 脊骨에는 스물 한 개의 마디가 있는데 아래에서 일곱번째 마디의 옆은 왼 쪽으로는 腎이 되고 오른 쪽으로는 命門이 된다. 命門은 곧 心包絡의 臟이니 手厥陰經에 응하고 手少陽三焦經과 합하여 表裏를 이룬다. 두 경락은 모두 相火를 가지고 있으니 위로 君火의 命을 행하므로 命門이라 한다”²³⁾고 하여 右命門相火를 처음으로 주장하였다. 河間の 右命門相火의 개념은 東垣의 陰火로 발전되었는데, 東垣은 陰火를 心火, 下焦包絡之火, 相火로 설명하였고 陰火의 발생과 병리변화에 있어서 脾胃의 盛衰가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河間이 右命門相火 개념을 처음 주장하였으나 이를 임상에 구체적으로 응용하지는 않은 반면 東垣은 이를 陰火의 개념으로 발전시켜 內傷理論의 주요한 병리기전으로 삼았다. 丹溪는 다시 河間の 火熱理論과 東垣의 內傷理論을 아우르고 발전시켜 相火理論을 집대성하였다.

이상에서 丹溪는 河間の 三傳弟子로서 河間の 疾病觀을 물려받았으며, 그의 主火論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살펴보았다.

3) 東垣이 「陽有餘陰不足論」에 미친 영향

東垣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元氣와 元氣를 滋養하는 脾胃, 그리고 元氣를 손상시키는 陰火등

이다. 여기서는 東垣의 陰火理論이 丹溪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東垣은 河間の 右命門相火理論을 발전시켜 陰火理論을 만들었는데, 陰火는 內傷病症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陰火의 病機에 대해 “만약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寒溫이 적당하지 않으면 脾胃가 이에 상하게 되고 喜怒憂恐은 元氣를 耗損하니, 이미 脾胃의 氣가 衰하고 元氣가 부족하니 心火만 盛하게 된다. 心火는 陰火인데 (陰火는) 下焦에서 일어나서 그 가닥이 心에 매달려 있다. 心이 腎을 주관하지 못하면 相火가 대신하게 되는데, 相火는 下焦包絡의 火요 元氣의 적이니, 火와 元氣는 함께 설 수 없어서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이 진다. 脾胃의 氣가 虛하면 (穀氣가) 腎으로 下流하여 陰火가 그 土位를 이기게 된다.”²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東垣은 陰火와, 心火, 下焦包絡之火, 相火를 같은 의미로 보고 있다. 즉 東垣의 陰火는 곧 일반적인 의미의 相火라는 것이다. 相火는 본래 運氣學에서 나온 용어이며 少陽에 배속된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手少陽三焦와 足少陽膽에 相火가 있게 된다. 또한 包絡과 三焦, 肝과 膽은 서로 腑리를 이루므로 包絡과 肝에도 相火가 있게 된다. 河間은 右腎命門을 心包絡의 臟으로 보아 命門相火를 주장하였고 이러한 命門相火의 개념을 東垣이 陰火理論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東垣은 陰火를 心火, 下焦包絡之火, 相火 등으로 칭한 것이다.

陰火의 유래에 대해서는 「調經論」에서 “病이 陰에서 생긴 것은 飲食居處와 陰陽喜怒에서 얻은 것이다”라고 한 것과, “陰이 虛하면 內熱하게 되는데, 勞倦하여 形氣가 쇠약해지고 穀氣가 충분하지 않으면 上焦가 行하지 않고 下焦도 통하지 않아 胃氣가 熱하게 되고 熱氣가 가슴속을 뜨겁게 하니 그러므로 內熱이 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였다.²⁵⁾ 즉, 陰火는 飲食

22)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 :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23) 劉河間. 素問要旨論.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50 : “人之脊骨, 有二十一節, 從下第七節之傍, 左爲腎, 右爲命門. 命門者, 便是心包絡之藏, 以應手厥陰之經, 與手少陽三焦合主表裏. 二經皆是相火, 上行君命, 故曰命門.”

24) 李東垣. 脾胃論飲食勞倦所傷始爲熱中論. 東垣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6. p.80 : “若飲食失節, 寒溫不適則脾胃酒傷. 喜怒憂恐 損耗元氣. 既脾胃氣衰, 元氣不足而心火獨盛. 心火者, 陰火也, 起于下焦, 其系繫于心, 心不主令相火代之, 相火, 下焦包絡之火, 元氣之賊也. 火與元氣不兩立, 一勝則一復. 脾胃氣虛則下流於腎, 陰火得以勝其土位.”

25) 李東垣. 脾胃論脾胃虛實傳變論. 東垣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6. p.58 : “調經篇云, 病生陰者. 得之飲食居處, 陰陽

居處와 陰陽喜怒에서 발생한 內熱을 가리키며 그 病變部位가 주로 胃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陰火는 후세의 陰虛火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東垣이 陰火를 특히 心火라고 한 것은 五行配屬에서 火가 心에 속하며, 甘味로 心火를 瀉하고 脾土를 補한다는 『內經』의 이론에 충실한 것이다.

丹溪는 東垣의 陰火理論을 더욱 발전시켜 相火理論을 집대성하였다. 丹溪는 “閉藏을 주관하는 것은 腎이요, 疏泄을 맡은 것은 肝이다. 두 臟은 모두 相火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계통은 위로 心에 속한다. 心은 君火이니 사물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쉽게 動하게 되고 心이 動하게 되면 相火도 또한 動하게 되며, (相火가) 動하면 精은 스스로 달아나게 된다”²⁶⁾라고 하여 肝腎이 相火를 주관하며 君火의 動함으로 말미암아 相火가 妄動한다고 하였다. 東垣이 陰火熾盛의 주요한 원인을 脾胃虛衰로 인한 元氣不足으로 본 것에 비해 丹溪는 肝腎의 陰氣가 相火妄動의 관건으로 보았다. 그러나 丹溪는 陰氣가 胃氣를 통해 水穀의 滋養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補陰의 방법에 있어서도 顧護胃氣를 강조하여 人參, 白朮 등 補脾胃하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丹溪의 相火理論은 東垣의 陰火理論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丹溪는 東垣의 ‘火가 元氣의 적이 된다’는 기본적인 관점은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구체적인 火熱病機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제기하였다. 東垣은 飲食不節, 勞役過度, 寒溫不適, 七情不安 등으로 인해 脾胃가 虛해지고, 脾胃가 虛해지면 元氣가 부족해지고, 元氣가 부족해지면 陰火가 熾盛하게 되고, 陰火가 熾盛하면 다시 元氣를 耗損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東垣은 陰火熾盛의 전제로 脾胃의 손상을 들었고, 火熱이 元氣를 상하는 것이 陰火病機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에 비해 丹溪는 飲食男女로 대표되는 人欲이

君火를 動하게 하고, 君火가 動하면 相火를 妄動하게 한다고 하였으며, 相火의 妄動에 있어서 脾胃의 損傷을 전제하지 않았고, 肝腎의 陰이 손상되는 것을 相火病機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았다. 이는 火熱病機의 중심을 脾胃에서 肝腎으로 옮긴 것이며, 아울러 君火와 相火의 관계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또한 丹溪는 肝腎의 陰氣를 자양하는 脾胃의 기능을 중시하여 胃氣가 약해서 水穀의 精氣를 섭취하지 못하는 것을 심한 陰虛라고 보았다. 그래서 相火의 치료에 있어서도 調理脾胃하는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東垣이 元氣不足으로 인한 陰火에 대해 甘溫除熱法을 응용한 의도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東垣의 元氣와 陰火에 관한 주장은 대체로 일관적이지 못하고 또한 陰火와 相火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에 비해 丹溪는 東垣의 陰火理論을 더욱 발전시켜 相火理論을 천명함으로써 인체의 火熱病機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하였다.

2.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한 고찰

1) 「陽有餘陰不足論」에서 陽有餘陰不足의 의미

丹溪는 陰陽과 五行의 생성에 대해 “太極이 움직여 陽을 生하고 고요하여 陰을 生하는데, 陽이 움직여서 변하고 陰이 고요하여 合하여 水火木金土를 生한다”²⁷⁾라고 말하였다. 또한 “陰陽은 진실로 待對로써 말한 것이니 가리키는 바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혹 寒熱을 말하기도 하고, 혹 血氣를 말하기도 하고, 혹 臟腑를 말하기도 하고, 혹 表裏를 말하기도 하고, 혹 動靜을 말하기도 하고, 혹 虛實을 말하기도 하고, 혹 清濁을 말하기도 하고, 혹 奇偶를 말하기도 하고, 혹 上下를 말하기도 하고, 혹 正邪를 말하기도 하고, 혹 生殺을 말하기도 하고, 혹 左右를 말하기도 한다.”²⁸⁾라고 하여 陰陽의 對待의인 관계를 설명하였는

喜怒. 又云, 陰虛則內熱, 有所勞倦, 形氣衰少, 穀氣不盛, 上焦不行, 下脘不通, 胃氣熱, 熱氣熏胸中, 故爲內熱.”

26)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于心.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27)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 : “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28)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데, 『陽有餘陰不足論』에서는 ‘陽有餘陰不足’을 ‘氣常有餘血常不足’이라고 하여 陰陽을 血과 氣로 보았다.

丹溪는 사람이 ‘陽有餘陰不足’하게 되는 이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하늘과 땅의 氣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하늘의 陽氣는 氣가 되고 땅의 陰氣는 血이 된다. 그러므로, 氣는 항상 有餘하고 血은 항상 不足하다. 어째서 인가? 하늘과 땅은 만물의 부모가 되는데, 하늘은 크고 陽이 되며 땅의 바깥을 운행하고, 땅은 하늘의 가운데에 있고 陰이 되며 하늘의 大氣가 떠받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는 가득 차니 陽에 속하며 달의 바깥을 운행하고, 달은 모자라니 陰에 속하며 해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 何以言之? 天地爲萬物父母, 天, 大也, 爲陽而運于地之外, 地居天之中爲陰, 天之 大氣舉之. 日, 實也, 亦屬陽而運于月之外; 月, 缺也, 屬陰, 稟日之光以爲明者也.)”²⁹⁾

즉 사람은 하늘과 땅의 氣를 받아서 태어나므로 天地日月의 虛實에 따라 ‘氣常有餘血常不足’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天地日月에 있어서 ‘陽有餘陰不足’하기 때문에 天地의 氣運을 받고 태어난 사람도 이에 相應하여 ‘陽有餘陰不足’하게 된 것이므로, ‘陽有餘陰不足’은 인간 생명 본연의 상태를 설명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陽有餘陰不足’을 陰虛火旺같은 병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丹溪는 ‘陽有餘陰不足’을 사람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氣常有餘血常不足’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氣와 血은 『靈樞營衛生會篇』에서 “血之與氣, 異名同類焉.”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相生相成의 관계이다. 즉 氣가 有餘하면 血도 有餘하게 되고, 血이 不足하면 氣도 不足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氣常有餘血常不足’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린다. 실제로 丹溪도 “사람이 태어나서 십육세 이전에는 血과 氣가 모두 성하여 마치 해가 바야흐로 떠오르는 듯하고 달이 장차 둥글게 되려는 듯하지만, 오직 陰氣의 자람은 부족하다”³⁰⁾고 하여 血氣가 모두 盛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鼓脹의 治法을 補氣行濕이라 하여³¹⁾ 氣虛한 病症을 말하기도 하는 등 여러 곳에서 ‘氣常有餘血常不足’과 일견 모순되는 말을 하였다. 하지만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氣常有餘血常不足’은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특성인 ‘常動’을 설명한 것이며, 이런 ‘常動’의 바탕 위에 또 다시 氣血의 虛實이 있는 것이다.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氣常有餘’는 丹溪가 ‘氣有餘便是火’³²⁾라고 한 점에 근거하여 ‘常有火’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丹溪는 인체의 火를 君火와 相火로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相火의 기능과 병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여기서의 火는 주로 相火를 가리킨다. 결국, ‘氣常有餘’는 ‘常有相火’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인체에 항상 相火가 있어서 인간 생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動을 일으킨다는 뜻이며, 다른 측면으로는 항상 相火妄動으로 인한 病症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血常不足’의 血은 相火가 붙어있는 肝腎의 陰氣, 즉 血과 精을 의미하는데, ‘血常不足’은 陰氣가 본래 難成易虧하고 또한 相火의 妄動에 의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한 ‘陽有餘陰不足’을 動多靜少한 인간 생명의 본질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動을 주관하는 相火는 항상 존재하고 靜을 주관하는 精血은 항상 不足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993. p.55 : “陰陽二者, 固以對待而言, 所指無定在, 或言寒熱, 或言血氣, 或言臟腑, 或言表裏, 或言動靜, 或言虛實, 或言清濁, 或言奇偶, 或言上下, 或言正邪, 或言生殺, 或言左右.”

29) 朱丹溪. 格治餘論陽有餘陰不足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30) 朱丹溪. 格治餘論滋幼論. 丹溪醫集本.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4 : “人生十六歲以前, 血氣俱盛, 如日方升, 如月將圓, 惟陰長不足”

31) 朱丹溪. 格治餘論鼓脹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1

32) 朱丹溪. 金匱鉤玄火.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16

사람이 태어남에 하늘의 陽氣를 위주로 하므로 인간 생명의 근본적인 특징이 動이라는 관점은 丹溪 이전에도 있었다. 일찍이 『素問陰陽離合篇』에서 “陽與之正, 陰爲之主”라 한 것에 대해서 楊上善은 “陽氣는 사람과 만물이 태어남의 주체가 되고, 陰氣는 사람과 만물이 길러짐의 주체가 된다”³³⁾라고 하여 陽氣를 태어남의 주체로 보았고 陰氣를 길러짐의 주체로 보았으며, 河間도 “하늘은 常火로써 하고 사람은 常動으로써 하니, 움직임은 陽에 속하고 고요함은 陰에 속한다.”³⁴⁾라고 하여 인간 생명의 본질을 動으로 보았다. 丹溪는 이러한 이론들을 더욱 발전시켜 실제 임상에 응용하였으며 「陽有餘陰不足論」을 지어 자세히 논하였다.

또한, 丹溪는 인간 생명의 원동력인 相火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陰氣에 根本하여야 한다고 하여 陰氣를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에 비해 景岳은 “사람이 天地의 氣를 얻어서 태어나는데, 태어나게 하는 氣는 즉 陽氣이니 陽氣가 없으면 태어남도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자라나서 장성해짐에 陽氣가 주체가 되지 않음이 없으며, 精血도 모두 氣가 化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陽이 성하면 精血도 성하고 生氣도 성하게 되며, 陽이 쇠하면 精血도 쇠하고 生氣도 쇠하게 된다”³⁵⁾라고 하여 陽氣가 사람의 태어남뿐만 아니라 성장함의 주체라고 하여 陽氣를 중시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陰氣와 陽氣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것은 각자 의도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이다. 즉, 丹溪는 辛溫燥烈한 약물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陰氣의 손상을 막고자 하였고, 景岳은 苦寒한 약물이 남용되는 상황에서 陽氣

의 손상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에 丹溪가 「陽有餘陰不足論」에서 의도한 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丹溪는 사람의 ‘陽有餘陰不足’을 논함에 있어서 天地陰陽의 이치가 ‘陽有餘陰不足’함에 근거하였다. 그리하여 “『內經』에서 말하기를 ‘陽은 天氣이고 바깥을 주관하며, 陰은 地氣이며 안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陽道實하고 陰道虛하다’라고 하였고, 또한 말하기를 ‘陰이 虛하면 天氣가 끊어지고, 陽이 盛하면 地氣가 부족해진다’라고 하였으니, 虛와 實이 있는 곳을 보건대 나의 주장은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陽道實’과 ‘陰道虛’라는 문구는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景岳은 “『內經』에서 ‘陽은 天氣이고 바깥을 주관하며, 陰은 地氣이며 안을 주관한다. 그러므로 陽道實하고 陰道虛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陽이 바깥을 주관하고 陰이 안을 주관하니 陽病은 實함이 많고 陰病은 虛함이 많다는 뜻이다. 어찌 天地의 和平한 陰陽을 일러 陽은 항상 有餘하고 陰은 항상 不足하다라고 말하는가?”³⁶⁾라고 하였다. 그리고 ‘陽道實, 陰道虛’에 대한 후세 醫家들의 해석은 대체로 景岳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는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의 근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章南은 “朱丹溪가 일찍이 말하기를 ‘해는 이지러짐이 없으니 陽은 항상 넉넉하고, 달은 이지러짐이 있으니 陰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후세 醫家들이 그 학설에 偏執하니 그 폐해가 景岳을 偏執하는 것과 같다. 陰陽의 두 氣는 變化流行하여 서로 치우치는 때가 있으므로 陰에 치우치거나 陽에 치우친 병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찌 陰陽의 이치가 진실로 치우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³⁷⁾라고 하여 丹溪와 景岳을 함께 비판하였는데 이

33)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58 : “陽氣以爲人物生正, 陰氣以爲人物養主也”

34)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03 : “天以常火, 人以常動, 動則屬陽, 靜則屬陰, 內外皆擾, 故不可峻用辛溫大熱之劑.”

35)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 “蓋人得天地之氣以有生, 而有生之氣, 卽陽氣也, 無陽則無生矣. 故凡自生而長, 自長而壯, 無非陽氣爲之主, 而精血皆氣化生也. 是以陽盛則精血盛, 生氣盛也, 陽衰則精血衰, 生氣衰也”.

36)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 “若經曰‘陽者, 天氣也, 主外, 陰者, 地氣也, 主內. 故陽道實, 陰道虛’, 此本經以陽主外陰主內, 而言陽病多實陰病多虛有如此, 豈以天地和平之陰陽而謂其陽常有餘陰常不足乎.”

37) 章南, 『醫門棒喝』. 북경. 大星文化社. 1989. p.209 : “朱丹溪嘗言日無虧, 故陽常有餘, 月有虧, 故陰常不足. 後世偏執其說, 害與偏從景岳同. 夫陰陽二氣, 變化流行, 互有偏駁之時,

것도 이치에 맞는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은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글자 상으로 해석한 것으로 丹溪가 ‘陽有餘陰不足’이라고 말한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다. 丹溪의 의도는 “하늘이 낳으신 血과 氣는 본래 스스로 和平한 것인데 勝이라 말하고 虛라 말하였으니, 이런 그릇되고 망령된 말로라도 깨우치지 않는다면 어찌 알겠는가?”³⁸⁾라는 문장에 잘 나타나 있다. 즉, ‘陽有餘陰不足’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한 것이지 天地陰陽의 虛實을 論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丹溪의 본래 의도를 헤아리지 않고 오직 글자만 쫓아 해석한다면 오해만이 생기니, 丹溪가 苦寒한 약으로 滋陰降火하는 滋陰派로 오해받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陽有餘陰不足論」의 가치는 이론상의 독창성과 더불어 실제 임상에서 辛溫燥烈한 약의 남용을 막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점에서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氣常有餘血常不足’은 ‘常有相火, 陰常不足’을 의미하며, 이는 사람이 타고난 바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動을 주관하는 相火는 항상 존재하고 靜을 주관하는 精血은 항상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陽有餘陰不足論」은 天地陰陽의 虛實을 論한 醫論이라기 보다는 사람들을 깨우쳐 相火의 妄動을 막고 陰氣를 보존하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측면이 강한 醫論이다.

2) 「陽有餘陰不足論」의 陽有餘에 관한 고찰

‘陽有餘’는 ‘氣常有餘’이며, ‘氣常有餘’는 곧 ‘常有(相)火’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주로 相火의 기능과 君火와의 관계, 그리고 相火妄動에 대한 治法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丹溪는 火를 크게 君火와 相火로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故有偏陰偏陽之病。豈可謂陰陽之理，固有偏勝之異哉？”

38)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66 : “天生血氣, 本自和平, 曰勝曰虛, 又焉知非此等謬妄, 有以啓之耶?”

“太極이 움직여 陽을 낳고 고요하여 陰을 낳는데, 陽이 움직여서 변하고 陰이 고요하여 합하면 水火木金土를 낳는다. 각각 그 性이 하나인데 오직 火만이 둘이다. 가로되 君火는 人火요, 가로되 相火는 天火다. 火는 안은 陰이고 바깥은 陽이며, 움직임을 주로 하므로 무릇 움직임은 모두 火에 속한다. 이듬으로써 말하고 形과 氣가 서로 낳으며 오행에 배속되므로 君火라 하고, 자리로써 말하고 虛無에서 생기며 자리를 지키어 命을 받고 움직여야 볼 수 있으므로 相火라 한다.

(太極, 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一其性, 惟火有二; 曰君火, 人火也; 曰相火, 天火也.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 故凡動皆屬火. 以名而言, 形氣相生, 配于五行, 故謂之君; 以位而言, 生于虛無, 守位稟命, 因其動而可見, 故謂之相.)”³⁹⁾

丹溪는 君火와 相火의 구별을 이름과 자리로써 하였는데, 君火는 有形有氣有名하고 五行에서 火에 속하는 心이며, ‘心은 君火이니 사물에 感하면 쉽게 動한다’⁴⁰⁾고 하였으므로 精神情志活動을 가리키기도 한다. 相火는 일정한 形氣가 없고 君火의 命을 받으며 動하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君火는 居上하여 下命하고 相火는 居下하여 稟命하므로, 君火가 動하면 相火도 또한 動하게 되는 것이다. 병리적인 측면에서는 “君火의 氣는 『內經』에서 濕⁴¹⁾으로 이야기하였다. 相火의 氣는 『內經』에서 火로써 이야기 하였으니, 모두 相火가 暴悍酷烈함이 君火보다 심하기 때문이다.”⁴²⁾라 하여 君火에 비해 相火는 發病이 迅速하고 病情이 重하다고 하였다.

丹溪는 인간 생명 활동에서 특히 相火의 역할을

39)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

40) 朱丹溪. 格致餘論陽有餘陰不足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41) 戴良의 「丹溪翁傳」에서는 ‘濕’이 ‘熱’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熱’이 맞다.

42)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9 : “君火之氣, 經以暑與濕言之; 相火之氣, 經以火言之, 皆表其暴悍酷烈有甚于君火者也”

重視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주관하여 만물을 생하므로 (만물은) 항상 動하고, 사람이 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또한 항상 動한다. 그 항상 動하는 것은 모두 相火가 행함이다. 하늘에서 보이는 것은 龍雷에서 나오면 木의 氣이고, 바다에서 나오면 水의 氣이다.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相火는 肝과 腎, 두 부분에 붙어 있는데, 肝은 木에 속하고 腎은 水에 속한다. 膽은 肝의 腑이고 膀胱은 腎의 腑이며, 心胞絡은 腎의 竅이고, 三焦는 그을림으로 말하였고 下焦는 肝腎의 部分을 말하니 모두 陰이면서 아래에 있는 것이다.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 見於天者, 出於龍雷則木之氣出於海則水之氣也. 具於人者, 寄於肝腎二部, 肝屬木而腎屬水也. 膽者, 肝之腑, 膀胱者, 腎之腑, 心胞絡者, 腎之配, 三焦, 以焦言而, 下焦司肝腎之分, 皆陰而下者也.)”⁴³⁾

丹溪는 하늘(陽)이 주관하여 만물을 낳음에 만물은 항상 動하고 사람의 삶도 또한 항상 動하는데, 이러한 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相火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相火는 肝木과 腎水에 붙어있고 膽膀胱心胞絡三焦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相火에 대해서는 『內經』의 運氣篇에서 ‘少陽相火’라는 말이 처음 나온 후에 王叔和, 張仲景, 葛洪, 巢元方등 漢과 晉의 諸家들은 相火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 唐代에 이르러 王冰이 처음 相火를 論하였는데, 王冰은 天人相應과 六氣가 臟腑와 內應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心胞絡이 相火의 臟임을 주장하였다. 南宋의 陳無擇은 少陽相火에 근거하여 ‘三焦相火’와 ‘膽相火’를 주장하였으며, 金元時代에 이르러서는 河間이 『素問玄機原病式』에서 “右腎命門小心, 爲手厥陰胞絡之臟, 故與手少陽三焦合爲表裏”라 하여 ‘命門相火說’을 주장하였고⁴⁴⁾, 東垣도 “相火, 下焦包絡之火”라 하여 河間을 따랐다. 이에 비해 丹溪는 肝腎의 相火를

중시하였다. 이처럼 少陽相火는 본래 運氣學的인 개념이었는데, 丹溪는 臟腑 위주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丹溪의 相火는 후세 醫家의 眞陽概念에 영향을 미쳤다.

丹溪는 相火가 妄動하는 것의 주원인을 君火로 보았으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閉藏을 주관하는 것은 腎이요, 疏泄을 맡은 것은 肝이다. 두 臟은 모두 相火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계통은 위로 心에 속한다. 心은 君火이니 사물에 느끼는 바가 있으면 쉽게 動하게 되고, 心이 動하게 되면 相火도 또한 動하게 되며, (相火가) 動하면 精은 스스로 달아나게 된다. 相火가 일어나면 비록 交會하지 않더라도 또한 암암리에 (精이) 흘러서 새게 된다. 성인이 오로지 收心養心으로 가르친 것은 그 뜻이 깊다.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 二臟皆有相火, 而其系上屬於心. 心, 君火也, 爲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 動則精自走. 相火翕然而起, 雖不交會, 亦暗流而疏泄矣. 所以聖賢只是教人收心養心, 其旨深矣.)”⁴⁵⁾

즉, 相火는 아래에 있어서 위에 있는 君火로부터 命을 받으므로, 君火가 사물에 느끼는 바가 있어 動하게 되면 相火도 따라서 妄動하게 된다는 것이다. 君火가 動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情慾이 끝이 없기 때문인데, 丹溪는 특히 “飲食과 男女에 사람의 큰 욕망이 있다”⁴⁶⁾라고 하여 食慾과 色慾이 君火를 動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丹溪는 여러 醫論들 보다 「飲食色慾箴」을 『格致餘論』의 처음에 내세워서 實踐躬行을 통하여 治未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相火의 妄動을 막는 방법으로서 丹溪는 儒家의 正心收心養心과 醫家의 恬淡虛無를 중시하였다.

丹溪는 ‘治病必求其本’의 원칙에 의하여 相火妄動에 대한 治法으로 陰血을 補하여 相火가 저절로 가

43)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

44) 郭永潔. 金元以前相火理論探析. 中醫雜誌. 1994년. 제12기. pp.712-714

45) 朱丹溪. 格致餘論陽有餘陰腑足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46) 朱丹溪. 格致餘論飲食色慾箴序.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p.9 : “傳曰,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

라앉게 하는 방법을 응용하였으며,⁴⁷⁾ “陰을 補하여 火가 스스로 내려가게 하는 것은 炒黃柏과 地黃 등의 약들이다”⁴⁸⁾라고 하여 그 구체적인 약물로 地黃과 黃柏을 들었다. 이러한 養血涼熱法의 대표적인 처방은 知柏四物湯으로서, 일반적으로 丹溪의 代表方으로 인정되는 大補陰丸이나 大補丸 등은 『丹溪心法』에서 나오는 처방들로 그의 醫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처방들이므로 丹溪의 代表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丹溪의 醫案에서 相火라고 변증한 병에 대해서 四物湯을 위주로 하여 치료한 것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丹溪가 어느 부인을 치료하였는데, 병을 앓기를 가슴이 불덩어리 같아서 한 번 불타오르면 곧 小腸으로 들어가 급히 소변을 보아야 했으며, 대변도 또한 수시로 나왔는데 이와 같이 하기를 삼 년을 하였다. 치료를 구함에 脈이 滯數하니, 이것은 相火가 小腸經으로 들어간 것이다. 四物湯에 炒黃連, 黃柏, 小茴香, 木通을 加하여 네 첩만에 편안해졌다.

(丹溪治一婦, 患心中如火, 一燒 便入小腸, 急去小便, 大便隨時亦出, 如此三年. 求治, 脈滯數, 此相火送入小腸經, 以四物湯加炒連, 柏, 小茴香, 木通, 四貼而安.)⁴⁹⁾

이밖에도 相火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火熱病에 대해서 知柏四物湯을 위주로 치료한 醫案이 다수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丹溪의 相火에 대한 代表方은 知柏四物湯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相火의 常과 變에 대해 살펴보았다. 丹溪는 相火를 君火의 명을 받아서 쉽 없는 생명 활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相火의 작용은 陰氣에 붙어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君火가 妄動하면 相火도 妄動하여 暴悍酷烈

한 病症을 일으키는데, 이에 대해서는 陰氣를 補하여 相火가 스스로 가라앉게 하는 養血涼熱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丹溪가 보다 중시한 것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主靜을 통하여 相火의 妄動을 미리 막는 것이다.

3) 「陽有餘陰不足論」의 陰不足에 관한 고찰

‘陰不足’은 ‘血常不足’이며, 이는 精血이 항상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는 精血의 역할과 항상 부족한 이유, 그리고 精血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陰은 相火를 潛藏하고 滋養하는 精血을 의미하며, 相火가 생명 활동의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근본이 된다. 丹溪는 陰氣가 相火의 근본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의 火는 비록 木에서 나오지만 모두 땅에 根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엎드리지 않고, 용이 땅에 숨지 않고, 바다가 땅에 붙어있지 않으면 울 수도 없고, 날을 수도 없고, 파도칠 수도 없다. 울음과 낚과 파도치는 움직임이요 火가 되는 것이다. 肝腎의 陰은 모두 相火를 갖추고 있으니 사람도 하늘과 같다.

(天之火, 雖出於木而皆本乎地. 故雷非伏, 龍非蟄, 海非附於地, 則不能鳴, 不能飛, 不能波也. 鳴也, 飛也, 波也, 動而爲火者也, 肝腎之陰, 悉具相火, 人而同乎天也.)⁵⁰⁾

즉, 하늘의 火는 땅에 根本하여야 비로소 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사람의 相火도 이와 마찬가지로 肝腎의 陰氣에 潛藏되어 있어야 비로소 그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丹溪는 ‘氣常有餘血常不足’이라고 하여 이러한 陰氣가 相火에 비해 항상 不足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陰氣가 본래 難成易虧하다는 점

47)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4 : “補養陰血, 陽自相附”

48) 朱丹溪. 金匱鉤玄. 丹溪醫集本.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16 : “有補陰即火自強者, 炒黃柏, 地黃之類”

49) 王希哲, 陳津生 點輯. 朱丹溪醫案拾遺. 金元四大家醫學全書. 천진.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p.1688.

50)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9

과, 相火가 쉽게 妄動하여 陰氣를 灼傷한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였다. 陰不足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少年期の 상황은 陰難成인데, 이에 대해 丹溪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는 열 여섯 살에 精이 통하고 여자는 열네살에 月經이 행하니, 이는 형체를 둔 이후에도 오히려 疔과 水穀의 滋養을 받아야 비로소 陰氣가 이루어져서 陽氣와 더불어 짝을 이룰 수 있으며 능히 成人이 되어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人之生也, 男子十六歲而精通, 女子十四歲而經行, 是有形之後, 猶有待于乳哺水穀以養, 陰氣始成而可與陽氣爲配, 以能成人而爲人之父母.)”⁵¹⁾

즉, 사람은 태어난 후로도 십 수년 동안 後天胃氣에 의지하여 水穀의 陰氣를 섭취하여야 비로소 陰氣가 이루어져서 成人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陰氣는 精血을 의미하며, 남자의 精通과 여자의 經行은 陰氣의 충족됨을 살필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壯年期와 老年期の 상황은 陰易虧인데, 이에 대해 丹溪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禮記』의 注에서 말하기를 ‘오직 오십 이후에는 陰을 기른 사람이 더함이 있다’라고 하였다. 『內經』에서 말하기를 ‘나이가 사십이면 陰氣가 저절로 반이 되어 起居가 쇠약해진다’라고 하였다. 또한 말하기를 ‘남자가 육십 사 세가 되면 精이 끊어지고 여자는 사십 구 세가 되면 月經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였다. 陰氣가 이루어지더라도 다만 삼십 년의 視聽言動을 공급하고 먼저 이지러지는 것이다. 사람의 情欲이 끝이 없으니 이 이루기 어렵고 이지러지기 쉬운 陰氣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禮記』注曰, 惟五十然後, 養陰者有以加. 『內經』曰, 年之四十, 陰氣自半而起居衰矣. 又曰, 男子六十四歲

而精絕, 女子四十九歲而經斷. 夫以陰氣之成, 止供得三十年之視聽言動, 已先虧. 人之情欲無涯, 此難成易虧之陰氣, 若之何而可以供給也?)”⁵²⁾

“육칠십 세 이후에는 陰이 陽과 짝을 이루기에 부족하여 陽이 거의 흠어지려한다. 이에 타고난 胃氣가 오히려 남아있음에 말미암고, 또한 水穀의 陰氣에 의지하여 (陽氣를) 겨우 붙잡아 둘 따름이다.

(六七十後 陰不足以配陽, 故陽幾欲飛越, 因天生胃氣尙爾留連, 又藉水穀之陰, 故羈縻而定耳)”⁵³⁾

즉 어렵게 이룬 陰氣도 4,50대가 되면 衰하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64세에 精絶하고 여자는 49세에 經斷하는 것에서 陰氣가 衰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6,70대 이후에는 水穀의 陰氣에 의존해서 겨우 흠어져 없어지려는 陽氣를 붙들어 매고 있을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항상 부족한 陰氣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主靜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음으로써 陰氣의 손상을 막는 것과 水穀의 陰氣를 섭취하여 陰氣를 기르는 것이 있다.

主靜하여 陰氣가 스스로 생기게 하는 것에 대해 丹溪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血은 陰氣이고 陰은 高요함을 주관한다. 안팎이 모두 高요하면 臟腑의 火가 일어나지 않고 金水의 두 氣가 길러져서 陰血이 스스로 生한다.

(夫血, 陰氣也. 陰主靜, 內外兩靜, 則臟腑之火不起, 而金水二氣有養, 陰血自生.)”⁵⁴⁾

여기서 臟腑의 火는 五臟火, 所謂 ‘五火’를 말하는데, 丹溪는 “五臟은 각각 火를 두는데 五志가 激하면 그 火가 일어난다”⁵⁵⁾라고 하여 五志로 인해 臟腑의

51) 朱丹溪. 格治餘論陽有餘陰不足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52) 朱丹溪. 格治餘論陽有餘陰不足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0

53) 朱丹溪. 格治餘論養老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3

54)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7

火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主靜하여야 비로소 臟腑의 火가 일어나지 않고, 臟腑의 火가 일어나지 않으면 陰血이 저절로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陰氣는 水穀의 陰氣로부터 滋養을 받는데, 陰氣와 胃의 관계에 대해 丹溪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의 陰氣는 胃에 의지하여 길러지니 胃가 약한 것은 陰이 약한 것이다. 陰이 약한 것은 虛함이 심함이다.

(人之陰氣, 依胃爲養. 胃弱者, 陰弱也, 虛之甚也.)⁵⁵⁾

여기에서 丹溪는 陰氣가 胃氣를 통해 水穀의 滋養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므로 補陰의 방법에 있어서도 顧護胃氣를 강조하여 人蔘, 白朮 등 補脾胃하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相火가 妄動하였을 때에도 氣가 虛하지 않으면 知柏四物湯 등으로 養血涼熱하였지만, 氣가 虛하면 四物湯에 補脾胃하는 人蔘, 黃芪, 白朮 등을 加味하여 응용하거나 補脾胃하는 약물을 위주로 응용한 점에서 丹溪가 治法에 있어서도 陰氣의 근본을 脾胃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陰虛에 대해 補脾胃하는 藥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도 丹溪는 節飲食할 것을 더욱 중시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味는 天賦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人爲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하늘이 준 바의 것은 穀菽菜果같은 것들이니, 자연의 조화로운 맛이므로 사람을 먹여서 補陰하는 공이 있다. 이것이 『內經』에서 말하는 바의 味이다. 사람이 한 바의 것은 모두 익히고 調味하고 치우치고 진한 맛이니 질병을 일으키고 생명을 해치는 독이 있다. 조화로운 맛에 편안한 자는 마음이 거두어지고 火가 가라앉게 되지만, 치우치고 진한 맛

에 편안한 자는 욕망이 방종하고 火가 치솟게 된다.

(味有出于天賦者, 有成于人爲者. 天之所賦者, 若穀菽菜果, 自然冲和之味, 有食人補陰之功, 此『內經』所謂味也. 人之所爲者, 皆烹飪調和偏厚之味, 有致疾伐命之毒. 安于冲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 以偏厚之味爲安者, 欲之縱, 火之升也.)⁵⁷⁾

즉, 자연의 조화로운 맛은 補陰하는 功이 있지만, 사람이 조리하여 치우치고 진한 맛은 병을 일으키고 생명을 해치는 毒이 있다고 한 것이다. 또한 치우치고 진한 맛을 즐기는 것은 補陰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火를 치솟게 하여 결국 陰氣를 손상시키니 丹溪가 이를 크게 경계하였다. 그리하여 丹溪는 「飲食箴」, 「養老論」, 「慈幼論」, 「茹淡論」 등에서 자연의 조화로운 맛으로 陰氣를 滋養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肝腎의 陰氣가 胃氣의 滋養을 받아서 생기므로 丹溪는 胃의 病機를 중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胃氣는 청순하고 온화한 氣이며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데 의지하는 本이다. 만약 謨慮하여 정신이 피로해지고, 동작하여 몸이 힘들어지고, 욕망이 절제함이 없고,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음식이 적당하지 않고, 약물이 법에 어긋나면 모두 (胃에) 손상을 일으킨다. 이미 손상된 후에는 마땅히 조리하고 補하며 (마음) 고요하여 괴이한 것을 알지 말아야 하는데, 이에 뜻을 방자하게 하고 금기를 범하면 손상된 胃氣가 완전히 회복될 가망이 없어지니 죽음에 가깝다.

(夫胃氣者, 清純冲和之氣, 人之所賴以爲生者也. 若謀慮神勞, 動作形苦, 奢欲無節, 思想不遂, 飲食失宜, 藥餌違法, 皆能致傷. 既傷之後, 須用調補, 恬不知怪, 而乃恣意犯禁, 傷敗之胃氣, 無復完全之望, 去死近矣.)⁵⁸⁾

여기서 丹溪는 脾胃의 손상에 대해 약물로 調補할

55)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53 : “五臟各有火, 五志激之, 其火隨起”

56) 朱丹溪. 格治餘論呃逆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1

57) 朱丹溪. 格治餘論茹淡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p.40-41

58) 朱丹溪. 格治餘論大病不守禁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22

것과 마음을 평안히 할 것을 모두 강조하였다.

丹溪는 陰虛에 대한 治法에 있어서 調理脾胃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肝腎이 陰氣가 胃氣의 滋養을 받기 때문이다. 丹溪가 陰虛라고 변증한 醫案에 있어서 사용한 약물들을 살펴보면 陰虛의 치료에 있어서 調理脾胃를 강조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江亮은 나이가 서른여섯이다. 傷寒咳嗽을 앓았는데 밤에는 발병하고 낮에는 괜찮아서 陰虛로 보고 치료를 하였다. 補中益氣湯에 天門冬, 麥門冬, 當歸身, 五味子 열다섯 알, 貝母를 추가하였다.

(江亮, 年三十六歲, 患傷寒咳嗽, 夜發晝可. 作陰虛治之. 補中益氣湯加天冬, 麥冬, 當歸身, 五味子十五粒, 貝母.)”⁵⁹⁾

“朱丹溪가 憑官人의 左耳鳴을 치료하였는데, 이것은 과로로 인하여 얻은 병이므로 治法은 마땅히 補陰하여 눌러줘야 한다고 하였다. 黃芪, 人蔘, 當歸, 陳皮, 茯苓, 升麻, 酒柏, 防風, 甘草, 白芍 등을 달여서 식전에 뜨겁게 마시게 하고, 마신 후에는 잠깐 자게 하였다.

(朱丹溪治憑官人, 左耳鳴, 此因勞得之, 法當補陰而鎮墜之. 黃芪, 人蔘, 當歸, 陳皮, 茯苓, 乘馬, 酒柏, 防風, 甘草, 白芍, 食前熱飲, 飲了去眠一覺.)”⁶⁰⁾

“儒學者 章立之가 왼 쪽 허벅지가 아파서 清熱滲濕藥을 복용하였는데 색이 붉어지고 부었으며, 통증이 허리와 옆구리까지 미치고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 이는 足三陰이 虛한 것이니 補中益氣湯과 六味地黃丸을 사용하였다. 두 달 정도 치료하니 원기가 점차 회복되고 病症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질병에 삼가기를 기꺼이 하였으므로 일 년쯤 지나서 다 나았다.

(儒者章立之左股作痛, 用清熱滲濕之藥, 色赤腫脹, 痛連腰脇, 腿足無力, 此足三陰虛. 用補中益氣, 六味地黃. 兩月餘元氣漸復, 諸症漸退, 喜其慎疾, 年許而痊.)”⁶¹⁾

59) 江 耀. 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p.3637.

60) 魏之琇. 續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p.4114.

“한 부인이 陰虛하여 月經이 오랫동안 통하지 않고 소변이 短澀하고 몸이 아팠다. 四物湯에 蒼朮, 牛膝, 陳皮, 生甘草등을 加한 湯藥으로 蒼莎丸에 蒼耳, 酒芍을 加하여 만든 丸을 내려 보내게 하였다.

(一婦陰虛, 經脈久不通, 小便短澀, 身體疼痛. 以四物湯加蒼朮, 牛膝, 陳皮, 生甘草, 又用蒼莎丸加蒼耳, 酒芍爲丸, 煎湯送下.)”⁶²⁾

“陳時叔을 치료하였는데 나이는 마흔 살 정도이고, 술을 좋아하였으며 대변에 때때로 피가 보였다. 봄에 脈을 앓았는데 색이 검고 배가 커져서 그 형상이 마치 귀신같았다. 그 脈을 진찰해보니 數하고 澀하였으며 重按하니 약한 듯하였다. 陰虛에 속한다. 朱丹溪가 四物湯에 黃芩, 黃連, 木通, 白朮, 陳皮, 厚朴, 生甘草를 加하여 湯을 만들어 주니 거의 일년이 되어서야 평안해졌다.

(又治陳時叔, 年四十餘, 性嗜酒, 大便時見血, 于春間患脈, 色黑而腹大, 其形如鬼, 診其脈數而澀, 重似弱, 屬陰虛. 朱以四物湯, 加芩, 連, 木通, 白朮, 陳皮, 厚朴, 生甘草作湯與之, 近一年而安.)”⁶³⁾

이상의 醫案들에서 볼 때 丹溪는 陰虛라고 변증한 醫案에서 주로 四物湯으로 養血하는 방법을 쓰거나 人蔘, 白朮등으로 補脾胃하는 방법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陰虛에 대한 治法으로 補脾胃를 위주로 한 예는 「養老論」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丹溪는 「養老論」에서 노인은 精血이 모두 소모되어 평상시에도 이미 熱證이 있다고 하였는데⁶⁴⁾, 이에 대한 처방에서 人蔘과 白朮을 君藥으로 하여 치료하였던 것이다.⁶⁵⁾

61) 魏之琇. 續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p.4151.

62) 魏之琇. 續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p.4207.

63) 俞 震. 古今醫案按.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230.

64) 朱丹溪. 格治餘論養老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2 : “人生至六七十以後, 精血俱耗, 平居無事, 已有熱證.”

65) 朱丹溪. 格治餘論養老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이상에서 陰氣의 역할과 항상 부족한 이유, 그리고 陰氣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陰氣는 相火의 근본으로서 相火는 陰氣에 潛藏되어 있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陰氣는 본래 難成易虧한데, 또한 相火가 쉽게 妄動하여 耗損시키므로 항상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陰氣를 보존하는 것은 생명 활동 유지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丹溪는 陰氣를 보존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主靜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는 것과 脾胃를 통해 水穀의 陰氣를 섭취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丹溪는 陰虛에 대한 治法에서 補脾胃를 중시하여 人蔘, 黃芪, 白朮등의 약물을 많이 사용하였다.

4) 丹溪의 처방에 나타나는 「陽有餘陰不足論」

丹溪는 매우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晩年에 「陽有餘陰不足論」을 지었으므로, 현재 전해지는 丹溪의 처방을 분석해보면 「陽有餘陰不足論」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丹溪의 처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金匱鉤玄』에 실린 丹溪의 처방과 『名醫類案』, 『續名醫類案』, 『古今醫案按』 등에 실린 醫案(이하 『醫案』으로 稱함)의 처방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⁶⁶⁾

먼저 분류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 (i) 『醫案』 중에서는 서로 중복된 처방을 除하고 469개의 처방을 분류하였다.
- (ii) 『金匱鉤玄』에서는 “戴語”부분을 除하고 처방을 분류하였다.

분류대상의 처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i) 『醫案』에서 가장 많이 응용한 처방은 四物湯(64例)이고, 그 다음은 二陳湯(35例), 小柴胡湯(20例), 保和丸(20例), 補中益氣湯(18例)이

며, 나머지는 10例 이하이다.

- (ii) 『金匱鉤玄』에서 가장 많이 응용한 처방은 四物湯과 二陳湯(64例)이고, 그 다음은 四君子湯(6例), 補中益氣湯(4例)이며, 나머지는 3例 이하이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사용된 약물의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i) 『醫案』중에서 자주 응용된 약물은 白朮, 甘草, 人蔘, 陳皮, 當歸, 川芎, 白芍, 茯苓, 黃芩, 半夏, 黃芪 의 순서로 모두 100例 이상이었다.
- (ii) 『金匱鉤玄』중에서 자주 응용된 약물은 甘草, 川芎, 半夏, 陳皮, 茯苓, 當歸, 白朮, 人蔘, 白芍, 黃芩 의 순서로 모두 60例 이상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丹溪가 喜用한 처방과 약물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i) 白朮, 人蔘, 當歸, 川芎, 四物湯과 같은 성질이 溫한 補氣補血方藥
- (ii) 黃芩, 黃連, 黃柏과 같은 성질이 苦寒한 清熱解毒藥
- (iii) 半夏, 陳皮, 二陳湯같은 理氣化痰方藥

여기서 보면 丹溪가 가장 喜用한 처방은 四物湯인데 그대로 쓴 경우는 드물고 대개 加味하여 응용하였다. 『朱丹溪醫案拾遺』⁶⁷⁾에서 加味四物湯을 응용한 醫案 32例를 분석한 결과 白朮(11회), 人蔘(10회), 陳皮(10회), 黃柏(10회), 知母(7회), 麥門冬(6회), 茯苓(5회), 黃芪(4회), 半夏(4회), 黃芩(4회), 黃連(3회)등의 빈도로 加味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에서 人蔘과 白朮은 9번 같이 사용되었고, 黃柏과 知母는 6번 같이 사용되었다. 즉, 四物湯에 加味하는 약물은 주로 補氣하는 人蔘, 白朮등의 약물과 清熱하는 黃柏, 知母등의 약물인 것이다. 특히 四物湯에 知母와 黃柏을 加味한 知柏四物湯은 相火妄動에 대한 丹溪의 대표

社. 1993. p.14 : “用蔘朮爲君, 牛膝芍藥爲臣, 陳皮茯苓爲佐, 春加川芎, 夏加五味黃芩麥門冬, 冬加當歸身, 倍生薑”
66) 劉紹華. 朱丹溪滋陰派析疑. 中醫雜誌. 1982년. 제9기. pp.4-5의 내용을 간추림.

67) 王希哲, 陳津生 點輯. 朱丹溪醫案拾遺. 金元四大家醫學全書. 錢謙.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적인 처방이다. 丹溪는 相火妄動에 대한 治法에 있어서 직접 瀉火하는 것보다 陰血을 補하여 相火가 저절로 가라앉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治法을 응용하였는데, 이러한 養血涼熱法은 相火의 근본을 陰血으로 보아 相火妄動에 대한 治法도 또한 그 근본, 즉 陰血에서 求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相火에 의한 陰血의 손상이 심하지 않고 脾胃가 손상되지 않아서 陰氣가 脾胃의 滋養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治法이다. 만약 脾胃가 손상되어 陰氣가 滋養받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한 경우에는 調理脾胃를 우선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丹溪는 人蔘, 黃芪, 白朮등의 補脾胃하는 약물들을 많이 응용하였으며, 四物湯에도 人蔘, 黃芪, 白朮등을 자주 加味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丹溪는 補陰하여 相火를 가라앉게 함에 있어서 補血하는 四物湯을 위주로 하고 直補眞水하는 六味地黃丸을 위주로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補血涼熱하는 처방을 많이 주면 또한 잠시 편안할 수 있을 것이나, 안팎이 고요하지 않으면 腎水는 생겨나지 않는다.

(若多與補血涼熱亦可稍安, 內外不靜, 腎水不生.)”⁶⁸⁾

즉, 陰血은 藥物로 보충할 수 있으나, 陰精이 보충되기 위해서는 藥物으로써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主靜하여 안팎이 모두 고요하여야 비로소 陰精이 생긴다고 본 것이다.

이상에서 丹溪의 醫案에서 쓰인 처방들을 분석한 결과 丹溪는 相火와 陰氣, 陰氣와 脾胃의 관계를 중시하여, 相火妄動의 病機에 대해서는 養血涼熱하는 知柏四物湯등의 처방을 위주로 하였으며, 陰虛의 病機에 대해서는 陰氣의 근본이 脾胃임을 중시하여 四物湯에 人蔘, 黃芪, 白朮등을 加味한 처방이나 四君子湯과 補中益氣湯 등과 같은 처방을 위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陰精은 약물로 보충되기 어려

우며 主靜하여야 비로소 길러질 수 있다고 보았다.

5) 「陽有餘陰不足論」과 陰虛火旺의 관계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서 陰虛火旺의 病機를 闡發한 대표적인 사람은 王綸이다. 王綸은 “만약 勞心하고 好色하면 안으로 眞陰을 손상시키니, 陰血이 이미 손상을 받은 즉 陽氣가 偏勝하게 되고 변하여 火가 된다. 이를 陰虛火旺勞瘵의 症이라 한다. 그러므로 丹溪가 陽有餘陰不足論을 발명하였으며, 知柏四物湯을 사용하여 그 陰氣를 補하니 火가 스스로 가라앉게 되었다. 이는 血藥을 사용하여 血의 부족을 補한 것이다.”⁶⁹⁾라고 하여 勞心好色하여 眞陰을 상하면 이에 火가 발생하는 陰虛火旺의 病機를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薛己, 王肯堂, 趙獻可, 尤在涇등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丹溪의 관점과는 다르다.

丹溪는 「陽有餘陰不足論」에서 사람의 氣는 하늘의 氣를 받아서 생기므로 有餘하고 血은 땅의 氣를 받아서 생기므로 不足하다고 하였으며, 이는 陽이 有餘하기 때문에 陰이 不足한 것이나, 陰이 不足하여 陽이 有餘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相火가 妄動하여 陰氣가 손상되면 相火가 더욱 더 치성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副次的인 것이며, 丹溪가 위주로 한 것은 君火의 妄動으로 인해 相火가 妄動하여 暴悍酷烈한 病症을 일으키고 陰氣를 損傷시키는 것이다. 후세의 醫家들이 말하는 陰虛火旺은 相火妄動으로 인해 陰氣의 손상이 심해져서 暴悍酷烈했던 相火의 기세가 수그러진 것으로 丹溪의 相火妄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丹溪가 중시한 暴悍酷烈한 相火妄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暴悍酷烈한 相火를 隱微한 陰虛發熱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丹溪를 陰虛火旺에 대해 滋陰降火法을 위주로 한 滋陰派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69) 王綸, 明醫雜著.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4 : “若勞心好色, 內傷眞陰, 陰血既傷, 則陽氣偏勝而變爲火矣, 是謂陰虛火旺勞瘵之症, 故丹溪發陽有餘陰不足之論, 用四物加黃柏知母, 補其陰而火自降, 此用血藥以補血之不足者也.”

68) 朱丹溪, 格治餘論惡寒非寒病惡熱非熱病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4

이상에서 살펴본듯듯이 相火妄動과 陰虛火旺은 서로 다른 病機를 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이 陰虛火旺의 病機를 밝힌 醫論으로 후세에 인식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氣常有餘血常不足’은 사람이 타고난 근본적인 특성인 ‘常動’을 말한 것인데, 이를 병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였고, 제목에서 陰虛火旺을 연상한 것이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목이 내용보다 중시되었고, 형식이 실질보다 중시된 것인데, 이는 제목이 인상적이어서 오히려 後世 醫家들이 丹溪의 의도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둘째, 後世 醫家들이 丹溪의 相火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여 오해가 생겼다. 丹溪의 相火妄動은 陰虛火旺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丹溪는 君火가 動하여 相火가 妄動하게 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지 陰氣가 손상되어 相火가 더욱 치성하게 되는 病機를 위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後世 醫家들은 相火의 病機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陰氣가 손상되어 相火가 妄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이 陰虛火旺의 病機를 밝힌 醫論으로 생각한 것이다.

셋째, 丹溪는 相火妄動에 대해서 戒色慾節飲食하여 君火의 妄動을 막는 것을 중시하였으며, 구체적인 治法으로는 ‘治病必求其本’의 원칙에 따라 陰血을 補하여 相火가 가라앉게 하는 ‘養血涼熱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陰虛火旺에 대한 治法인 ‘滋陰降火法’과는 그 處方構成은 비슷하지만 處方構成情神은 다르다. 그런데 後世 醫家들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고 丹溪의 養血涼熱法을 ‘直補眞水’하는 滋陰降火法으로 오해를 한 것이다.

결국, 「陽有餘陰不足論」은 제목이 갖는 상징성이 내용을 압도하여, 그 결과 後世 醫家들은 相火의 생리적인 기능, 君火와 相火의 관계, 陰血과 脾胃의 관계 등을 중시하지 않고 相火의 병리적인 측면만을 중시하여 丹溪를 直補眞水하여 滋陰降火하는 滋陰派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後世 醫家들은 知母黃柏등의 苦寒한 약들을 補陰의 良藥이라고 인식하여 남용

함으로써 심각한 弊害를 낳았으며, 張景岳이 丹溪를 비판한 것도 당시에 丹溪의 이론을 빌어 苦寒한 약물을 남용하는 시대 풍조에 기인하는 것이다. 『太平惠民和劑局方』이 후세 醫家들의 辛溫燥烈한 약물의 남용 때문에 丹溪의 비판을 받았고, 丹溪도 또한 후세 醫家들이 滋陰의 명목 하에 苦寒한 약물을 남용함에 따라 景岳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景岳 또한 후세에 溫補의 폐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비난을 받게 되니, 이러한 것들이 어찌 丹溪나 景岳의 잘못이겠는가? 시대의 잘못된 풍조를 바로잡으려는 그들의 의도가 후세사람들에게 잘못 인식이 된 것일 뿐인 것이다.

3. 「陽有餘陰不足論」의 영향

元代 이전에도 滋陰學說이 있었으나 丹溪가 陰柔滋潤한 약을 많이 사용하여 많은 경험과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滋陰學說이 長足の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제자로는 趙道震, 趙以德, 戴思恭, 王履, 劉橘泉(아들이 劉純)이 있고, 사숙한 사람으로는 王綸, 虞搏, 汪機 등이 있다. 丹溪의 이론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丹溪를 비판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인 景岳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戴思恭

戴思恭(1324-1405)의 字는 元禮이며, 明 浙江省 浦江人이다. 숙부인 戴良의 권유로 그의 아버지인 戴堦와 함께 스무살 때부터 丹溪에게서 理學과 醫學을 배웠다. 丹溪의 『金匱鉤玄』을 訂正하고 말미에 자신의 醫論 6편을 보충하였으며, 『證治要訣』, 『推求師意』 등을 지었다. 특히 『金匱鉤玄』은 丹溪가 말한 내용을 戴元禮가 訂正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신이 보충한 부분에는 ‘戴云’이라고 明記하고 있다. 특히 말미에 「火豈君相五志俱有論」, 「氣屬陽動作火論」, 「血屬陰難成易虧論」 등 6편의 醫論이 있는데, 이는 戴元禮가 지은 것으로서 丹溪의 이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잘 나타내고 있다. 相火의 常과 變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丹溪와 일치한

다. 즉,

“火性이 妄動하지 않아서 일상에 도를 어기지 않고 자리를 지켜 명을 받는다면 造化와 生存의 틀을 운행하게 된다. 사람은 氣交의 가운데에 있으므로 움직임이 많고 고요함이 적으니 욕심이 妄動하지 않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릇 움직임이란 모두 火에 속하고, 龍火가 한 번 妄行하면 元氣가 손상을 받으니, 그 형세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

(火性不妄動, 能不違道於常, 以稟位聽命, 運行造化生存之機矣. 夫人在氣交之中, 多動少靜, 欲不妄動, 其可得乎? 故凡動者, 皆屬火, 龍火一妄行, 元氣受傷, 勢不兩立.)”⁷⁰⁾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龍火一妄行, 元氣受傷, 勢不兩立’에서는 東垣의 元氣와 丹溪의 陰精을 같은 의미로 본 것으로 일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만, 氣와 火에 대해서 丹溪는 따로 구별을 하지 않았지만, 戴元禮는 “氣는 본래 陽에 속하니, 도리어 勝하면 火가 된다”⁷¹⁾, “氣와 火는 한 가지 이치일 따름인데, 動과 靜이 달라져서 도리어 둘이 된다”⁷²⁾라고 하여 氣를 常으로, 火를 變으로 보았다. 이는 결국 丹溪가 강조했던 相火의 생리적인 의미가 축소되고 병리적인 의미가 부각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고, 그리하여 결국 景岳이 “陽은 元氣의 大主이고 火는 病氣의 나 타남이다. 그리고, 動은 陽의 본성인데 어찌 본성으로 病變을 삼아 動은 모두 火에 속한다고 말하는가?”⁷³⁾라고 丹溪를 비판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2) 劉純

70) 戴元禮, 金匱鉤玄火豈君相五志俱有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71

71) 戴元禮, 金匱鉤玄氣屬陽動作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72 : “氣本屬陽, 反勝則爲火矣.”

72) 戴元禮, 金匱鉤玄氣屬陽動作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173 : “氣之與火, 一理而已, 動靜之變, 反化爲二.”

73)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 “以陽爲元氣之大主, 火爲病氣之變見, 而動乃陽之性道, 安得以性道爲病變, 而言凡動皆屬火也?”

劉純의 字는 宗厚이다. 선조는 淮南에 籍을 두었으나, 후에 咸寧(陝西 西安一帶)으로 이주하였다. 劉純의 아버지인 劉橋泉이 丹溪에게서 의학을 배웠으므로, 丹溪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丹溪의 의학을 중국의 서북부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丹溪의 相火를 陰虛火旺으로 이해하여 丹溪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醫經小學』에서

“性이 物에 感하여 정신이 밖으로 달리고 욕망이 절제함이 없으면 陰氣가 耗散되고 陽氣가 붙어 있을 수 없어서 마침내 질병이 일어나게 된다. 惡寒이 있지만 寒症이 아니고 惡熱이 있지만 熱症이 아니며 證이 實邪와 비슷하지만 이는 陰虛熱이다.

(性或物感, 精神外馳, 嗜欲無節, 陰氣耗散, 陽無所附, 遂致病作. 惡寒非寒, 惡熱非熱, 證類實邪, 此陰虛熱.)”⁷⁴⁾

“道氣가 온화하면 나의 元氣를 돕지만, 元氣가 부족하면 相火가 홀로 치성하니 火와 元氣는 같이 있을 수 없어서 한 쪽이 이기면 한 쪽은 지게된다. 이에 陰虛에 이르러 陰虛火가 동하면 五亂이 모두 생기게 된다.

(道氣冲和, 助我元氣, 元氣不足, 相火獨盛, 火與元氣, 不能兩立, 一勝一復, 乃致陰虛, 陰虛火動, 五亂俱施.)”⁷⁵⁾

라고 하였는데, 모두 陰氣 또는 元氣가 부족하여 相火가 발생하고, 이러한 相火를 陰虛熱또는 陰虛火動으로 보았다. 이는 嗜慾無節하면 君火가 動하고, 君火가 動하면 相火도 妄動하여 결국 灼傷陰液하게 된다는 丹溪의 이론과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陰虛火旺의 病機를 밝히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

한편, 劉純의 『玉機微意』는 薛己에게 영향을 미쳤다.

74) 劉純, 醫經小學. 劉純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

75) 劉純, 醫經小學. 劉純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50.

3) 王綸

王綸의 字는 汝言이고, 號는 節齋인데, 浙江慈溪人이다. 儒醫로서 일찍이 아버지의 病환으로 인해 의학을 연구하였으며, 東垣과 丹溪의 이론을 두루 섭렵하였다. 王綸에 대해서 薛己는 “이른바 良相과 良醫를 겸하였다.”⁷⁶⁾라고 높이 평가하였고, 王綸의 『明醫雜著』에 注를 달아서 『薛氏醫案』에 수록하였다. 王綸은 薛己와 趙獻可등 溫補派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王綸은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람의 一身에 陰은 항상 不足하고 陽은 항상 有餘하다. 하물며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적고 욕망이 지나친 사람은 많으니, 精血은 이미 이지러지고 相火는 반드시 왕성해진다. 火가 왕성하게 되면 陰은 더욱 모자라게 되어 勞瘵咳嗽咯血吐血등의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항상 그 陰을 補하여 陰으로 하여금 陽과 가지런하게 하면 水가 능히 火를 제약하니 水가 올라가고 火가 내려가면 이것이 無病이다. 그러므로 丹溪先生께서 補陰의 學說을 만드셨으니 오로지 腎水를 補할 것을 말한 것이다.

(人之一身, 陰常不足, 陽常有餘. 況節慾者少, 過慾者多, 精血既虧, 相火必旺. 火旺則陰愈消, 而勞瘵咳嗽咯血吐血等症作矣. 故宜常補其陰, 使陰與陽齊, 則水能制火, 而水升火降, 斯無病矣. 故丹溪先生發明補陰之說, 謂專補左尺腎水也.)⁷⁷⁾

이는 劉純과 마찬가지로 精血이 먼저 衰하면 相火가 動한다고 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薛己가 注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앞의 病症은 腎經의 陰精이 不足하여 陽氣가 化하지 못하여 虛火가 妄動하여 이러한 病症에 이른 것이니, 마땅히 六味地黃丸으로 補하여 陰氣를 왕성하게 하면 陽氣가 化하게 된다. 만약 腎經의 陽氣가 燥

熱하여 陰氣가 生하지 못하여 虛火가 안에서 動하여 앞의 病症에 이른 것에는 마땅히 八味地黃丸으로 補하여 陽氣를 왕성하게 하면 陰氣가 행하게 된다.

(前症, 設若腎經陰精不足, 陽無所化, 虛火妄動, 以致前症者, 宜用六味地黃丸補之, 使陰旺則陽化. 若腎經陽氣燥熱, 陰無以生, 虛火內動, 而致前症者, 宜用八味地黃丸補之, 使陽旺則陰生.)⁷⁸⁾

丹溪는 相火에 대한 治法으로 養血涼熱法을 설정하여, 그 처방으로 養血하는 四物湯에 涼熱하는 知母黃柏을 加한 知柏四物湯을 善用하였는데, 이것이 薛己에 이르러 단순하게 直補腎水하는 六味地黃丸으로 변화하였고, 심지어 八味地黃丸까지 응용되게 되었다. 八味地黃丸은 丹溪가 누누이 피할 것을 강조한 附子 등의 辛溫燥烈한 약물이 들어가는데, 이는 丹溪의 뜻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王綸은 “內傷發熱은 陽氣가 손상되어 올라가지 못하고 陰分으로 내려가서 內熱이 되는 것이다. 陽이 虛하니 그 脈은 크나 힘이 없고, 肺脾에 속한다. 陰虛發熱은 陰血이 손상되어 火를 제어하지 못하여 陽氣가 올라와 內熱이 되는 것이다. 陽이 旺하니 그 脈이 빠르나 힘이 없고, 心腎에 속한다.”⁷⁹⁾라고 하여, 東垣의 內傷發熱은 陽氣가 傷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丹溪의 陰虛發熱은 陰血이 傷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에 薛己가 注하기를 “陽虛發熱한 경우에는 마땅히 補中益氣湯을 사용하여 陽氣를 升補하고, 陰虛發熱한 경우에는 마땅히 六味丸을 사용하여 陰血을 培補하여야 한다. 총괄적으로 논하건대 두 증상은 비록 陰陽氣血의 나누임이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脾胃의 陽氣가 不足한 所致이다. 그 發熱이 몸과 病이 모두 虛함에 속하니 그러므로 나는 黃柏知母를 금하니, 陽氣를 거둬 상할 것을 두려워함이다.”⁸⁰⁾라고

78)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5.

79)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0 : “內傷發熱, 是陽氣自傷, 不能升達, 降下陰分而爲內熱, 乃陽虛也, 故其脈大而無力, 屬肺脾. 陰虛發熱, 是陰血自傷, 不能制火, 陽氣升騰而爲內熱, 乃陽旺也, 故其脈數而無力, 屬心腎.”

80)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0 : “陽虛發熱者, 宜用補中益氣湯, 以升補陽氣, 陰虛發熱者, 宜用六味丸, 以培補陰血. 總論二症雖有陰陽氣血之分, 實則皆因

76) 王綸. 明醫雜著補注明醫雜著序.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6 : “所謂良相良醫, 蓋兼體之矣”

77) 王綸. 明醫雜著.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15.

하였다. 결국 王綸은 丹溪의 相火를 陰虛發熱로 인식하였고, 薛己는 더 나아가 六味地黃丸이나 八味地黃丸으로 虛火를 치료하고 知母黃柏은 苦寒하여 陽氣를 傷하므로 禁할 것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이는 丹溪의 相火와 相火에 대한 治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知母黃柏의 苦寒함을 의식한 것으로 이러한 인식은 景岳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虞搏

虞搏(1438-1515)은 明代의 醫家로서, 字는 天民이고 浙江省 義烏人이다. 그의 학문은 『內經』, 『難經』을 근본으로 하였고, 傷寒은 張機, 脈法은 王叔和, 小兒는 錢乙의 법을 본받았으며, 그리고 金元四大家의 학술적 장점을 취합하여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曾叔祖가 丹溪와 同世에 나서 同鄉에 살았으므로, 이에 가까이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아 그 또한 의술을 세상에 떨쳤으며, 그것이 나에게로 이어졌다”⁸¹⁾라고 하여 丹溪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밝혔다. 저서로는 『醫學正傳』이 있다.

그는 “무릇 ‘陽常有餘陰常不足’이라는 것은 天地에 있어서는 萬物에 적용해서 말한 것이요, 人身에 있어서는 전체에 적용해서 論한 것이지, 직접적으로 氣를 陽으로 血을 陰으로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⁸²⁾라고 하여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陰陽氣血의 의미가 인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단순히 氣와 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先哲이 말한 것을 고찰해보면 ‘하늘은 이 火가 아니면 만물을 생할 수 없고, 사람은 이 火가 아니면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이는 相火가 없어서는 안됨을 말한 것으로, 少火生氣의 뜻이 아니겠는가? 또한 이르기를 ‘火는 元氣와 더불어 함께 설 수 없어서, 하나가 이기면 곧 하나가 진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火가 過亢해서는 안됨을 말한 것이니, 壯火散氣를 이름이

아니겠는가?”⁸³⁾라고 하여 丹溪의 相火를 少火로 보고, 東垣의 陰火를 壯火로 보았다. 丹溪의 相火는 少火와 壯火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虞搏은 丹溪의 相火를 少火보고 東垣의 陰火를 壯火로 보았다. 虞搏이 『陽有餘陰不足論』을 사람의 본질적인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본 것은 매우 타당하다.

5) 汪機

汪機(1463-1540)의 자는 省之이고, 號는 石山居士라 했는데, 祁門人이다. 『明史·方技傳』에서 “吳縣張頤, 祁門汪機, 杞縣李可大, 常熟繆希雍, 皆精通醫術, 治多奇中”이라 할 만큼 의술로써 이름이 높았으며, 그의 의학사상은 대부분 丹溪를 추종했으나, 東垣의 이론도 폭넓게 수용하였다. 그는 “丹溪가 論한 陽有餘陰不足은 이치에 근거하여 사람의 타고난 바를 論한 것이다”⁸⁴⁾라고 하였으며, 또한 “丹溪가 내세워 특별히 그것을 論한 것은 사람들에게 陰氣를 保守하고 망령되이 耗損할 수 없음을 알리려고 한 것이 아님이 없다.”⁸⁵⁾라고 하여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이 사람이 본래 타고난 稟賦를 論한 것이며, 그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陰氣를 잘 保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丹溪의 이론을 적절하게 평가한 것이다. 다만, 陰氣를 손상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사람이 천지간에서 살면서 사물에 현혹되고 일에 힘들어하니, 오래 行하여 筋을 상하고, 오래 서있어서 뼈를 상하고, 오래 앉아 있어서 腎을 상하고, 오래 보아서 神을 상하고, 오래 생각하여 뜻을 상함을 면하지 못한다. 무릇 이러한 것은 손상은 모두 陰을 상하게 한다.”⁸⁶⁾라고 하여, 丹溪가 相火로 인한 陰血의 손상을

脾胃陽氣不足所致。其發熱屬形病俱虛，余故禁服黃柏知母，恐復傷陽氣耳。”

81)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2.

82)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 4 : “夫陽常有餘陰常不足者，在天地則該于萬物而言，在人身則該乎一體而論，非直指氣爲陽而血爲陰也”.

83) 虞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p.11 : “考先哲有曰，‘天非此火，不能生物，人非此火，不能有生’，言其不可無也，此非少火生氣之意乎。又曰，‘火與元氣不兩立，一勝則一負’，言其不可亢也，又非壯火散氣之謂乎。”

84)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 “丹溪論陽有餘陰不足，乃據理論人之稟賦也。”

85)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 “丹溪揭出而特論之，無非戒人保守陰氣，不可妄耗損也。”

86)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

강조한 것에 비해 汪機는 勞倦으로 인한 陰氣의 손상을 주장하였으며 相火가 陰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汪機는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陰陽을 營氣와 衛氣로 해석하여 「營衛論」이라는 醫論을 지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陽有餘라는 것은 衛氣를 가리킨다. 衛氣는 진실로 補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營의 氣도 또한 陽이 아니라 이 氣는 혹 虛하고 혹 가득하니 虛한데 補하지 않으면 氣가 虛怯하게 된다.

(陽有餘者, 指衛氣也, 衛氣固不待于補, 而營之氣, 亦謂之陽. 此氣或虛或盈. 虛而不補, 則氣有虛怯矣.)”⁸⁷⁾

“經에서 말하기를 “衛氣는 水穀의 거친 氣이니 재빨라서 邪氣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補하여도 이익이 없는 것이다.

(經云 “衛氣者, 水穀之悍氣也, 慄疾不受諸邪”, 此則陽常有餘, 無益于補者也.)”⁸⁸⁾

“經에서 말하기를 “營氣는 水穀의 精氣이니 脈안으로 들어가서 호흡의 수에 응한다”라고 하니, 이러한 즉 이른바 陰氣는 차고 이지러짐이 없을 수 없으며 補함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다.

(經曰 “營氣者, 水穀之精氣, 入于脈內, 與息數呼吸應”, 此則所謂陰氣不能無盈虛也, 不能不待于補也.)”⁸⁹⁾

즉, ‘陽有餘’의 陽은 衛氣이고, ‘陰不足’의 陰은 營氣라고 본 것이다. 이는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서 새로운 견해를 보인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

해는 임상에서 人蔘, 黃芪등으로 扶正固本하는 治法을 喜用한 것과 관련이 있다. 즉, 汪機는 衛氣와 營氣가 모두 氣이며, 氣를 補하는 것은 陰陽을 모두 補하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 사람이 陰이라는 글자 밑에 氣라는 글자를 더 하였으니, 陽은 진실로 이 氣이고 陰도 또한 이 氣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陰中有陽하고 陽中有陰하다고 하였으니, 陰陽이 한가지로 氣인 것이다. 周敦頤가 “陰陽이 한가지로 太極이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氣는 이지러짐이 있고 가득 참이 있으니 마치 달이 등글 때가 있고 이지러질 때가 있음과 같다.

(古人于陰字下加一氣字, 可見陽固此氣, 陰亦此氣也. 故曰陰中有陽, 陽中有陰, 陰陽同一氣也, 周子曰 “陰陽一太極”是也. 然此氣有虧有盈, 如月有圓有缺也.)”⁹⁰⁾

즉, ‘陽有餘’의 陽은 衛氣이고, ‘陰不足’의 陰은 營氣인데, 이들은 모두 氣에 속한다고 한 것이다. 또한 이 氣를 日月이 떠있는 大氣와 陰陽의 근원인 太極에 비유하였으며, 盈虧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汪機는 扶正固本을 강조함에 있어서, “人蔘과 黃芪는 다만 陽만 補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陰도 補한다.”⁹¹⁾라고 하여 人蔘과 黃芪를 통한 補氣를 중시하였다.

비록 陰陽을 衛氣와 營氣로 보아 그 의미를 축소하였고, 衛氣는 補하여 이로울 것이 없다고 하고 나서 다시 人蔘과 黃芪로 陽을 補한다고 한 점등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丹溪가 “사람의 陰氣는 胃에 의지하여 길러진다”⁹²⁾라고 하여 脾胃를 중시하였고, 실제 임상에서도 陰虛라고 말한 醫案들에서 人蔘·黃芪·白朮등의 약물을 위주로 치료했던 점을

社. 1999. p.65 : “以人生天地間, 營營于物, 役役于事, 未免久行傷筋, 久坐傷骨, 久坐傷腎, 久視傷神, 久思傷意. 凡此數傷, 皆傷陰也.”

87)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88)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5.

89)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90)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91) 汪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66 : “蔘芪不惟補陽, 而亦補陰.”

92) 朱丹溪. 格致餘論·呃逆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41 : “人之陰氣, 依胃爲養.”

감안한다면, 당시에 苦寒한 약물로 滋陰하는 데 치중했던 世醫들에 비해 丹溪의 임상 경험을 잘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汪機의 扶正固本하는 治法은 그의 再傳弟子인 孫一圭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6) 張介賓

張介賓(약1563-1640)의 字는 景岳 또는 會卿이고 浙江 山陰人이다. 처음에는 丹溪의 학설을 따르다가 후에 자기의 생각과 다름을 깨닫고 '陽非有餘'와 '眞陰不足'의 이론을 제출하고 丹溪를 크게 비판하였다.

景岳은 陽氣를 매우 중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이 天地의 氣를 얻어서 태어나는데, 태어나게 하는 氣는 즉 陽氣이니 陽氣가 없으면 태어남도 없다. 그러므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자라나서 장성해 집에 陽氣가 주체가 되지 않음이 없으며, 精血도 모두 氣가 化해서 생기는 것이다. 이 까닭으로 陽이 성하면 精血도 성하고 生氣도 성하게 되며, 陽이 쇠하면 精血도 쇠하고 生氣도 쇠하게 된다

(蓋人得天地之氣以有生, 而有生之氣, 卽陽氣也, 無陽則無生矣. 故凡自生而長, 自長而壯, 無非陽氣爲之主, 而精血皆氣化生也. 是以陽盛則精血盛, 生氣盛也, 陽衰則精血衰, 生氣衰也.)⁹³⁾

여기서의 陽氣는 사실상 丹溪가 “天主生物, 故恒於動, 人有此生, 亦恒於動, 其所以恒於動, 皆相火之爲也.”⁹⁴⁾라고 한 부분에서의 相火와 같은 의미이다. 하지만 景岳은 “陽氣로써 元氣의 大主로 삼으니, 火는 病氣의 변화가 나타남이요 動은 陽의 性道이니, 어찌 性道로 病變을 삼아서 動이 모두 火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⁹⁵⁾라고 하여 陽氣와 火를 명확하게 구별하여 陽氣는 元氣의 大主라고 하였고 火는 病氣의 나타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丹溪가 相火에 常

과 變이 있다고 본 점과는 다르다. 결국 景岳은 丹溪의 '陽常有餘'에 相火의 常과 變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여기서의 陽을 眞陽의 의미로만 생각하였고 相火는 병리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였다.

景岳이 丹溪를 비판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丹溪는 해와 달의 이지러지고 참에 말미암아 陽常有餘陰常不足을 論하였으며, 補陰丸·大補丸등의 처방을 만들어 黃柏知母를 神丹으로 여기니, 집집마다 전하여 사용함에 그 害가 얼마나 심한가?

(丹溪因日月之盈虧, 以爲陽常有餘陰常不足之論, 而立補陰大輔等丸, 以黃柏知母爲神丹, 家傳戶用, 其害孰甚?)⁹⁶⁾

즉, 丹溪가 「陽有餘陰不足論」을 내세워 知母黃柏 등의 苦寒한 약물들을 남용함으로써 '元氣之大主'인 陽氣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丹溪는 相火妄動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먼저 養血하여 陰陽相附하게 할 것을 강조하였고, 涼熱은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또한 氣虛한 경우에는 먼저 補氣할 것을 강조하였고, 脾胃의 穀氣가 陰血의 근원임을 강조하여 調理脾胃 또한 중시하였다. 특히 陰虛라고 변증한 醫案에서도 처방에 人蔘, 黃芪, 白朮 등이 위주로 쓰인 것을 보면 丹溪가 苦寒한 약물로 滋陰하였다는 景岳의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景岳이 살았던 明代에 丹溪의 滋陰을 오해하고 苦寒한 약물로 滋陰하는 世醫들이 많았으므로 이에 반대하여 丹溪를 비난한 것인데,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실상 景岳의 眞陽論은 간접적으로 丹溪의 相火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景岳이 命門과 眞陽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부분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經에서 말하기를 腎은 水를 主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서 저장한다. 그러므로 五液이 모두 精으로 돌아가고 五臟은 모두 腎에서 다스려진다. 腎은 精室을 두는데 이를 일러 命門이라 하니 天一이 있는 곳

93)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5.

94) 朱丹溪. 格致餘論相火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p.38

95)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36 : “以陽爲元氣之大主, 火爲病氣之變見, 而動乃陽之性道, 安得以性道爲病變, 而言凡動皆屬火也.”

96)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84.

이다. 즉 眞陰의 腑이며 精이 이에 저장된다. 精은 즉 陰中之 水이며, 氣가 이로부터 化生하니 氣는 즉 陰中之 火이다. 命門은 두 腎의 사이에 있으니 즉 人神의 太極이다. 太極으로부터 兩儀가 生하니, 水火가 갖추어져있으며 消長이 걸려있다. 그러므로 受生의 처음이요 性命의 근본이다. 眞陰을 다스리고자하되 命門을 버리는 것은 그 다스림이 아니니, 이 眞陰의 藏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經曰腎者主水, 受五臟六腑之精而藏之. 故五液皆歸乎精, 而五臟皆統乎腎, 腎有精室, 是曰命門, 爲天一所居, 卽眞陰之腑. 精藏于此, 精卽陰中之水也, 氣化于此, 氣卽陰中之火也. 命門居兩腎之中, 卽人神之太極. 由太極以生兩儀, 而水火俱焉, 消長系焉. 故爲受生之初, 爲性命之本. 欲治眞陰而舍命門, 非其治也, 此眞陰之藏, 不可不察也.⁹⁷⁾

景岳은 命門이 腎에 있는 精室이며, 여기에 眞陰이 저장되어있고, '陰中之火'가 여기로부터 化生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陰中之火'는 丹溪의 相火와 상통하는 개념이다.

景岳은 丹溪의 相火는 眞陽과 邪火의 양면성이 있음을 간과하였고, 또한 丹溪가 苦寒한 처방으로 陽氣를 상하게 한 것으로 오해를 하여 丹溪를 신랄하게 비판하였지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또한 景岳에 많은 영향을 끼친 薛己가 『薛氏醫案』에 丹溪의 『平治會萃』와 王綸의 『明醫雜著』를 신고 있으며, 특히 王綸의 『明醫雜著』에注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많이 천명한 점을 생각한다면, 丹溪는 景岳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戴原禮, 王綸, 汪機, 虞搏 등 丹溪의 학설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丹溪의 後學끼리 학설논쟁을 벌였고, 溫補派도 또한 격렬하게 「相火論」과 「陽有餘陰不足論」에 반대하였는데, 이러한 논쟁은 明代 二百餘年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대상은 주로 「陽有餘陰不足論」의 글자상의 해석에 머물렀고, 丹溪의 본래 의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은 후세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대체로 陰虛火旺의 病機를 설명한 醫論으로 인식되게 되었는데, 특히 王綸은 「陽有餘陰不足論」에서 陰虛火動說을 闡發하였고 아울러 補陰丸方 등을 만들어 응용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촉진시켰다. 薛己는 王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眞陰眞陽說을 提唱하였고, 六味地黃丸과 八味地黃丸으로 滋化源하는 治法을 善用하여 明代 溫補派의 先河를 열었는데, 薛己의 이론은 王綸의 《明醫雜著》에 있는 그의 注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趙獻可, 張景岳, 孫一圭 등은 이를 계승하여 命門陰陽水火學說을 提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張景岳에 이르게 되었다. 張景岳은 '陽非有餘陰常不足'을 주장하여 「陽有餘陰不足論」을 주장한 丹溪를 비판하였고, 이 두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상통하는 면이 많다. 결국 丹溪의 甘溫滋潤한 治法이 景岳에 이르러서 더욱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結 論

丹溪가 살았던 당시는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였고 의학적으로는 火熱病症이 만연하였던 시기였다. 하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太平惠民和劑局方』을 무비판적으로 習用하던 世醫들은 이러한 火熱病症에 대해 辛溫燥烈한 藥물을 남용하여 그 폐해가 컸다. 丹溪는 이러한 風潮에 격렬히 반대하였으며, 四物湯같은 溫柔滋潤한 처방을 위주로 하여 마침내 당시의 風潮를 一新하였다. 그의 理論과 治法은 理學과 다른 金元四大家의 醫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丹溪의 用藥은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辛溫燥烈한 것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金元四大家와도 같지 아니하여, 독특한 溫柔滋潤한 특징을 두었다. 이러한 丹溪의 특징이 잘 나타난 이론이 바로 「陽有餘陰不足論」이다. 본 논문에서는 「陽有餘陰腑足論」에

97)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p.686.

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丹溪는 “人受天地之氣以生, 天之陽氣爲氣, 地之陰氣爲血. 故氣常有餘, 血常不足.”이라고 하여 사람의 타고난 본질적인 특성을 ‘氣常有餘血常不足’으로 보았다. ‘氣常有餘’는 ‘常有火’를 의미하는데, 丹溪는 인체의 火중에서 相火의 기능과 병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므로 여기서의 火는 주로 相火를 가리킨다. 그리고 ‘血常不足’은 相火가 붙어있는 肝腎의 精血이 항상 부족함을 의미한다.

결국, ‘氣常有餘血常不足’은 動多靜少한 인간 생명의 본연적 특징을 설명하는 바이며, 이는 動을 주관하는 火가 항상 존재하며 靜을 주관하는 精血이 항상 不足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氣常有餘’는 항상 相火가 있다는 의미이다. 丹溪는 하늘이 주관하여 만물을 낳으므로 만물은 항상 動하며 사람도 또한 항상 動하게 되는데, 이러한 動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바로 相火라고 하였다. 相火는 肝木과 腎水에 붙어있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아울러 膽膀胱·心包絡·三焦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相火는 사람이 살아가는 원동력이면서 다른 측면으로는 妄動하여 병을 일으키기도 쉽다. 相火는 居下하여 君火로부터 命을 받으므로, 相火가 妄動하는 것은 君火가 動하기 때문인데, 君火가 動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情慾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丹溪는 君火가 動하여 相火가 妄動하게 되면 眞陰을 煎熬하고, 眞陰이 損傷되어 相火를 潛藏하지 못하면 相火는 더욱 더 熾盛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相火妄動에 대한 治法으로는 직접 瀉火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陰血을 補하여 相火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治病必求其本’이라는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러한 養血涼熱法의 대표적인 처방이 바로 知柏四物湯이다. 하지만 丹溪는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節飲食·戒色欲하여 君火의 妄動을 막고 그럼으로 인해 相火가 妄動하지 않게 하는 主靜을 중시하였다.

셋째, ‘血常不足’은 精血이 항상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精血은 본래 難成易虧한데, 相火가 쉽게 妄動하여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陰氣는 脾胃를 통해 水穀의 陰氣를 취함으로써 그 不足함을 보충할 수 있으며, 主靜하여 相火의 妄動을 막으면 그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인간 생명 활동의 근본인 相火는 陰氣에 붙어있어야 비로소 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陰氣는 다시 胃氣에 의해 滋養되므로 丹溪는 顧護胃氣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人蔘, 黃芪, 白朮등 補脾胃하는 약들을 많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腎精은 약으로서 보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오직 內外가 모두 고요하여야 비로소 생긴다고 하였다.

넷째, 丹溪는 理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丹溪는 朱熹의 四傳弟子인 白雲 許謙에게서 理學을 배운 儒學者로서, 周敦頤의 高요함으로 主를 삼으라는 이론과, 朱熹의 道心으로 人心을 主宰하라는 이론을 물려받아 이를 의학에 응용하였다. 즉, 人心이 매번 道心으로부터 命을 받고 또한 高요함으로써 人心을 主宰한다면, 君火의 움직임이 모두 中節하게 되어 相火는 妄動하지 않고 오직 생명 활동의 缺 없는 動을 일으킬 따름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丹溪는 河間의 再傳弟子인 羅知悌로부터 의학을 배웠으므로, 河間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丹溪는 河間의 火熱病機를 물려받아서, 그 病機를 相火로써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며, 辛溫燥烈한 약의 남용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여 『太平惠民和劑局方』의 辛溫燥烈한 약을 남용하는 풍조를 一新시켰다.

여섯째, 丹溪는 東垣의 陰火理論과 補土理論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東垣은 ‘先身之精氣’를 元氣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元氣는 脾胃의 滋養을 받아야 비로소 충족되며 脾胃가 손상되어 元氣가 부족하게 되면 질병이 생기므로 脾胃를 중시하였다. 또한 元氣不足으로 인한 病機에서 陰火(心火)를 강조하였으며 治法

으로는 甘溫除熱法을 응용하였다. 丹溪는 생명 활동의 원동력인 相火가 陰氣에 붙어있어야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陰氣는 脾胃의 滋養을 받으므로 脾胃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므로 陰虛한 경우에는 補脾胃하는 治法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調理脾胃함에 있어서 丹溪는 東垣에 비해 滋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東垣이 陰火와 心火相火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을 보충하여 相火로써 그 이치를 명확하게 설명하였다.

일곱째, 丹溪의 理論은 戴元禮, 汪機, 王綸, 劉純, 虞搏 등의 滋陰派와 薛己, 趙獻可, 張景岳 등의 溫補派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戴元禮는 丹溪의 相火에 대해서 相火의 常은 氣로 보고 相火의 變은 火라고 하였는데, 이는 丹溪의 相火에 대해 생리적인 의미보다 병리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劉純은 陰氣 또는 元氣가 부족하면 相火가 妄動한다고 하여, 相火를 陰虛熱 또는 陰虛火旺으로 보았다. 이는 相火로 인해 陰氣가 손상되는 病機를 위주로 한 丹溪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王綸도 劉純과 마찬가지로 精血이 먼저 衰하면 相火가 動한다고 하여,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을 토대로 陰虛火旺의 이론을 闡發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明醫雜著』를 통해 薛己에게 영향을 미쳤다.

虞搏은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陰陽氣血의 의미는 인체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지 단순히 氣와 血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相火의 생리적인 기능을 중시하였다.

汪機는 「陽有餘陰不足論」의 「氣常有餘血常不足」은 사람이 본래 타고난 稟賦를 論한 것이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陰氣를 잘 保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또한 「陽有餘陰不足論」에서의 陰陽은 衛氣와 營氣라고 보았는데, 이들은 모두 氣에 속한다고 하였다. 또한 氣를 日月이 떠있는 大氣와 陰陽의 근원인 太極에 비유하였으며, 盈虧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汪機는 補氣가 곧 補陰補陽이라고 하여, 임상에서 人蔘과 黃芪를 통한 補氣를 중시하였다.

張景岳은 丹溪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였는데, 그 주된 이유는 丹溪가 「陽有餘陰不足論」을 내세워 知母·黃柏 등의 苦寒한 약물들을 남용함으로써 元氣의 주체인 陽氣를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丹溪가 相火妄動을 치료함에 있어서 養血을 강조하였고 涼熱은 보조적으로 사용한 점과 脾胃의 穀氣가 陰血의 근원임을 강조하여 調理脾胃를 중시한 점등을 감안한다면 적절하지 못한 비판이다.

결국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은 생명의 원동력이며 動하기 쉬운 相火와 相火의 근원이며 難成易虧한 陰氣에 대해 설명하고, 主靜을 통해 相火를 妄動하지 않게 하여 陰氣의 손상을 막아야 함을 주장한 실천적인 醫論이다. 丹溪는 相火를 妄動시키는 人欲의 주요 원인으로 飲食男女를 들었는데, 현대의 상황은 金元時代보다 훨씬 더 人欲이 動하기 쉬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스스로 대처하게 할 啓導는 부족하고 오히려 燥濕健脾하거나 直補腎水하는 治法을 남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丹溪의 甘溫滋潤한 약물을 위주로 한 滋陰理論과 일상생활에서 相火의 妄動을 방지하고자 한 主靜論은 그 임상적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논문에서 丹溪의 「陽有餘陰不足論」의 내용을 醫案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이론의 眞意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었으며, 醫案이 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東垣의 陰火論이나 河間의 火熱論도 실제 임상과 비교하여 고찰한다면 보다 그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金元四大家는 이론에 치우쳐 있고 術學的이라는 인식도 바뀔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 原典 >

1.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서울. 大星文化社. 1991.
2. 朱 喜. 中庸. 서울. 明文堂. 1992.

3. 朱 喜. 大學. 서울. 明文堂. 1992.
4. 黎靖德. 朱子語類. 북경. 中華書局. 1994.
5. 劉河間. 素問要旨論.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6. 劉河間. 素問玄機原病式.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7. 劉河間. 素問病機氣宜保命集. 河間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8.
8. 李東垣. 脾胃論. 東垣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9. 李東垣. 內外傷辨惑論. 東垣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10. 朱丹溪. 格治餘論.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11. 朱丹溪. 局方發揮.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12. 朱丹溪. 金匱鉤玄.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13. 朱丹溪. 本草衍義補遺. 丹溪醫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3.
13. 滑 壽. 難經本義.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5.
14. 劉 純. 醫經小學. 劉純醫學全書本.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王 綸. 明醫雜著.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5.
16. 虞 搏.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1986.
17. 汪 機. 石山醫案. 汪石山醫學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張介賓. 類經類經附翼.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7.
19. 張介賓. 景岳全書.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20. 永瑤.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海口. 海南出版社. 1999.
22. 江 權. 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요녕.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22. 魏之琇. 續名醫類案. 二續名醫類案. 요녕.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6.
23. 俞 震. 古今醫案按.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24. 章 南. 醫門棒喝. 서울. 大星文化社. 1989.

< 專著 >

1. 李聰甫, 劉炳凡 編著. 金元四大家學術思想之研究.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3.
2.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裘沛然, 丁光迪. 中醫各家學說.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4. 裘沛然. 中醫歷代各家學說. 상해.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5. 丁光迪. 東垣學說論文集.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84.
6. 章眞如. 朱丹溪學術考論. 북경.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7. 陳邦賢. 中國醫學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中華民國 26년.
8. 甄志亞. 中國醫學史.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1.
9. 王希哲, 陳津生 點輯. 朱丹溪醫案拾遺. 金元四大家醫學全書. 친진.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3.
10. 姜春華. 歷代中醫學家評析. 상해.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 論文 >

1. 尹暢烈. 金元時代醫學의 學術的 特徵. 慶熙大學校大學院. 1983.
2. 崔三燮, 洪元植. 李東垣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韓醫大論文集. 1981.
3. 宋哲鎬, 洪元植. 河間의 生涯와 醫學思想. 慶熙韓醫大論文集. 1983.
4. 宋哲鎬, 洪元植, 金光湖. 金元四大家에 關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986.
5. 李永源, 尹暢烈. 朱丹溪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關한 研究.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991.
6. 劉紹華. 朱丹溪滋陰派析疑. 中醫雜誌. 1982년 제 9기.

7. 劉時覺. “丹溪是否養陰派”의 探討. 中醫雜誌. 1983년 제3기.
8. 丁春年, 杜發斌, 董澤浩. 朱丹溪是滋陰派. 中醫雜誌. 1983년 제2기.
9. 吳伯平. 丹溪是養陰家還是主氣論者. 上海中醫藥雜誌. 1984년 제8기.
10. 宋經中. 濕熱相火爲病最多. 上海中醫藥雜誌. 1993년 제7기.
11. 周國雄. 相火與相火妄動的 探討. 新中醫. 1993년 제1기.
12. 丁光迪. 朱丹溪의 胃氣論.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년 제5기.
13. 丁光迪. 剖析陽有餘陰腑足論. 浙江中醫學院學報. 1983년 제4기.
14. 陳月明. 論丹溪의 陽有餘與景岳의 陽不足. 浙江中醫學院學報. 1985년 제4기.
15. 李孝剛. 丹溪翁養陰別裁. 上海中醫藥雜誌. 1983년 제9기.
16. 孔國富. 朱丹溪格治餘論의 學術思想. 江蘇中醫. 1990년 제5기.
17. 徐樹民. 論丹溪和理學의 關係. 浙江中醫學院學報. 1984년 제4기.
18. 盛維忠. 丹溪存世著作概述. 中醫雜誌. 1985년 제5기.
19. 黃吉棠. 論宋明理學促進中醫學의 發展. 新中醫. 1988년 제2기.
20. 陳紬藝. 我寫金元四大家提要之旨趣. 中醫雜誌. 1991년 제1기.
21. 范永升. 劉完素對老年病學의 貢獻.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년 제6기.
22. 陳照甫. 論劉河間의 臟腑六氣病機說. 上海中醫藥雜誌. 1982년 제6기.
23. 黃景泉. 試論河間風熱同病說. 新中醫. 1983년 제10기.
24. 丁光迪. 略論『脾胃論』의 成就. 新中醫. 1982년 제9기.
25. 熊永厚. 『脾胃論』治則初探. 浙江中醫學院學報. 1982년 제5기.
26. 朱曾柏. 論李杲陰火學說. 新中醫. 1982년 제6기.
27. 李德名. 從脾胃論看李東垣의 用藥特點. 新中醫. 1984년 제5기.
28. 周崇仁. 東垣陰火病機探析. 上海中醫藥雜誌. 1982년 제10기.
29. 潘華信. 論東垣陰火証治之名實. 中醫雜誌. 1991년 제7기.
30. 吳永貴. “陰火”考辨. 中醫雜誌. 1986년 제6기.
31. 郭永潔. 金元以前相火理論探析. 中醫雜誌. 1994년 제12기.
32. 易法銀. 金元四大家論治火熱証之特色. 中醫雜誌. 1993년 제6기.
33. 鍾春帆. 略論中醫之火. 新中醫. 1982년 제10기.
34. 盛維忠. 如何評價 和劑局方. 浙江中醫學院學報. 1984년 제1기.